

碩士學位 請求論文
指導教授 琴 基 淑

패션 코디네이션에 관한 연구
-패션 잡지 화보를 중심으로-
A Study of Fashion Coordination
--Focusing on photographs in fashion magazines--

弘益大學校 產業美術大學院
產業디자인專攻 衣裳디자인 細部專功
朴 聖 淑

2002年 12月 31日

T
746-92
100-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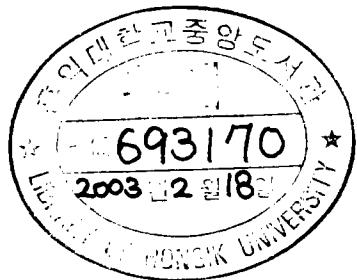
패션 코디네이션에 관한 연구

--패션 잡지 화보를 중심으로--

이 論文을 碩士學位 論文으로 提出함.

2002年 12月 31日

弘益大學校 產業美術大學院



產業디자인専攻 衣裳디자인細部専攻

朴 聖 淑

朴聖淑의 碩士學位 論文을 推薦함.

2002年 12月 31日

指導教授 琴 基 淑

弘益大學校 產業美術大學院

朴聖淑의 碩士學位 論文을 認准함.

審　查　委　員

審查委員長 _____ (印)

審查委員 _____ (印)

審查委員 _____ (印)

弘益大學校 產業美術大學院

국문초록

현대 패션산업에서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분야가 패션 코디네이션이다.

이는 기성복의 발달로 다양하고 세분화된 브랜드가 다수 등장하였고, 정장류 뿐 아니라 캐주얼시장의 활성화에 기인한다. 착용경향도 변화하여 크로스 코디네이트 상품이 선호되기 시작하였다. 패션 트렌드 역시 이미지별 포지션에 따라 다양한 룩이 공존하는 경향을 띠며 유행의 양상이나 주기도 이전의 패션과 비교해 볼 때 확실히 짧고 다양해졌다. 소비자의 마인드 또한 자기표현과 자기만족을 우선 시하는 경향으로 바뀌어 개성추구에 높은 가치를 부여함에 따라 기성복을 입더라도 남들과 차별화 되길 원하며, 이로 인해 소품과 헤어와 메이크업의 비중이 높아져 토탈 코디네이션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전문적인 연출테크닉 또한 요구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코디네이터의 직업 부상을 들 수 있는데 이는 현대패션업계에서 필요에 의해 요구되는 직종으로 단순히 '옷을 입는다'라는 차원에서 좀 더 발전하여 의도적이고 전문적으로 연출하는 전문가의 필요성이 증대되었기 때문이다.

패션 코디네이션은 비단 전문분야를 떠나 실생활에서 일반인들도 적용하고 활용하여 개성창출에 도움을 주는 실용학문으로 활용될 수 있다.

그러므로 패션 디자인 못지 않게 이미 생산되어진 제품들을 어떻게 매치하여 연출하느냐의 패션 코디네이션은 패션의 중요한 한 분야로 인식되고, 최근 들어 학문적 연계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추세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패션 코디네이션을 학문적인 시각에서 접근하였고, 선행연구와 본 연구자의 실전경험을 종합하여 패션 코디네이션의 이론을 고찰하고, 정립된 이론을 바탕으로 패션잡지의 화보를 연구대상으로 설정하여 패션 코디네이션을 분석하였다.

패션 코디네이션의 요소는 아이템, 소품, 색채, 소재, 문양, 헤어&메이크업, 모델로 분류하고 요소별 특성 및 연출 방법적 측면을 고찰하였다. 개개의 연출요소들이 종합되어 하나의 룩(look)을 창출하며 이를 패션 코디네이션의 완성으로 보았다.

코디네이션의 분석자료로 인지도 있는 패션 전문잡지 중 전 세계적으로 발행되고, 패션 라이선스지 가운데 한국판 창간이 가장 먼저 이루어진 「엘르」(ELLE)를 선택하여 그 안에서 코디네이션의 사례가 잘 드러나 있는 화보를 분석하였다. 패션이 전문적으로 다뤄지고 뚜렷한 주제에 따라 기획 연출되는 화보는 단순히 입는다는 차원에서 벗어나 이미지를 연출하는 코디네이션의 개념과 일맥상통한다. 또한 화보에서 연출되는 패션제품들은 다양한 브랜드로 구성되어 특정 스타일에 치우치지 않고 폭넓게 패션 스타일을 분석할 수 있었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화보의 주제는 룩, 아이템, 색채, 소품, 소재, 문양, 모델, 디자이너(브랜드)의 8가지에 의해 기획되었으며 이에 따라 화보주제별로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코디네이션의 특징을 도출해 내었다.

첫째, 트렌드에 근거하여 패션화보가 기획되고 연출되었다. 이를 통해 본 연구의 범위인 90년대 말 비중 있는 패션매체를 통한 연도별 트렌드 및 패션 코디네이션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었다.

둘째, 트렌드 경향이 투영된 화보의 연출전개방식은 패션을 리드해 나간다는 전문가적인 견해에서 시도되어 새롭고 신선하며 때론 파격적인 믹스 앤 매치 코디네이션으로 연출되었다.

셋째, 각각 화보의 주제는 철저히 T.P.O를 배경으로 기획되고 연출되었다.

넷째, 화보의 테마로 가시화 되지는 않았지만 코디네이션에 있어 헤어와 메이크업의 비중이 매우 높은 연출요소로 작용되었다.

다섯째, 화보에서 코디네이션을 전달하는 모델은 신체적 체형보다는 이미지에 의거하여 연출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패션 코디네이션의 총체적 관계를 도식화 할 수 있었다.

본 논문은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그 동안 체계화되어 있지 못한 패션 코디네이션의 총체적 관계를 인식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앞으로 다각도의 접근에 따른 패션 코디네이션 연구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목 차

국문초록	i
목차	iv
표목차	vi
그림목차	vi
사진목차	vii
I. 서 론	1
1. 연구목적 및 의의	1
2. 연구대상 및 범위	2
II. 이론적 고찰	4
1. 용어정의	4
2. 코디네이션에 관한 선행연구	9
3. 패션잡지 화보의 일반적 특성	12
III. 패션 코디네이션의 요소	15
1. 아이템	15
2. 소품	16
3. 색채	17
4. 소재	23
5. 문양	25
6. 헤어 & 메이크업	28
7. 모델	29
IV. 패션 잡지 화보의 코디네이션 분석	30
1. 화보의 일반적 분석	30
2. 화보의 주제별 코디네이션 분석	32
V. 종합적 분석 결과	66
1. 트렌드를 반영한 코디네이션	66

2. 딕스 앤 매치 코디네이션	68
3. T.P.O에 의한 코디네이션	69
4. 헤어와 메이크업을 활용한 토탈 코디네이션	70
5. 모델의 이미지를 강조한 코디네이션	73
6. 패션 코디네이션의 총체적 관계	74
VII. 작품연출	75
1. 기획의도	75
2. 연출요소	75
3. 작품설명	77
4. 작품사진	78
VIII. 결 론	79
참고문헌	82
Abstract	85

표목차

<표1> 아이템 분류	16
<표2> 색의 체계	17
<표3> 패션 이미지에 의한 배색	19
<표4> 재질감에 따른 심리적 분위기 연상	24
<표5> 문양의 종류와 이미지	26
<표6> 패션 코디네이션의 과정	29
<표7> 국내화보기사 대 외국화보기사 비율	31
<표8> 연도, 월 별 화보의 주제	33
<표9> 연도, 월 별 화보의 주제	34
<표10> 화보의 주제 비율	35
<표11> 연도, 월별 룩 분류	36
<표12> 트렌드 분석표	67
<표13> 패션 코디네이션의 총체적 관계	74

그림목차

<그림1> ‘시스템’ 코디 콘테스트 포스터	5
-------------------------------	---

사진목차

<사진1> 오리엔탈룩, 1997.11. 화보2	39
<사진2> 재즈룩, 1997.11. 화보5	39
<사진3> 히피룩, 1998.1. 화보4	39
<사진4> 스포티 캐주얼룩, 1999.3. 화보5	39
<사진5> 집시룩, 1999.9. 화보5	39
<사진6> 아방가르드룩, 2000.8. 화보3	39
<사진7> 섹시 엘레강스룩, 2000.2. 화보3	40
<사진8> 모던룩, 2000.11. 화보4	40
<사진9> 모던룩, 2000.11. 화보4	40
<사진10> 웨스턴룩, 2000.6. 화보3	40
<사진11> 컨트리룩(코지룩), 1999.10. 화보2	40
<사진12> 1970s 아메리칸 캐주얼룩, 2000.2. 화보1	40
<사진13> 1970s 레트로룩, 2000.2. 화보5	41
<사진14> 1920s 레트로룩, 2000.9. 화보3	41
<사진15> 1960s 레트로룩, 2000.10. 화보6	41
<사진16> 1960s 레트로룩, 2000.11. 화보5	41
<사진17> 폐미닌하게 푼 평크룩, 2000.9. 화보4	41
<사진18> 와일드하게 연출한 평크룩, 2000.11. 화보3	41
<사진19> 리조트룩, 2000.6. 화보5	42
<사진20> 아웃도어룩, 1998.12. 화보1	42
<사진21> 크루즈룩, 2000.7. 화보1	42
<사진22> 슬릿 스커트, 1998.8. 화보1	42
<사진23> 플리츠 스커트, 1998.8. 화보2	42

<사진24> 맥시라인 아이템, 1998.12. 화보4	42
<사진25> 배기팬츠, 1999.7. 화보7	46
<사진26> 미러 아프리케 편침 디테일, 1999.4. 화보4	46
<사진27> 패딩 아이템, 1997.12. 화보7	46
<사진28> 비키니룩, 1999.7. 화보3	46
<사진29> 로맨틱룩, 1997.2. 화보4	46
<사진30> 스포티 아이템, 1999.11. 화보1	46
<사진31> 체크 스커트. 스쿨걸룩, 1999.12. 화보6	47
<사진32> 복고라인 실루엣, 2000.10. 화보5	47
<사진33> 샤넬 디테일, 2000.11. 화보1	47
<사진34> 이질적인 아이템 매치, 1997.7. 화보2	47
<사진35> 남.여성적 아이템 매치, 1997.10. 화보4	47
<사진36> 브래지어 레이어드룩, 1998.6. 화보4	47
<사진37> 오리엔탈 빈티지룩, 1998.9. 화보5	48
<사진38> 남.여성 믹스앤매치, 2000.11. 화보6	48
<사진39> 남.여성 믹스앤매치, 2000.11. 화보6	48
<사진40> 원 컬러 코디네이션, 1997.12. 화보3	48
<사진41> 원 컬러 코디네이션, 2000.1. 화보2	48
<사진42> 원 컬러 코디네이션, 2000.5. 화보5	48
<사진43> 톤온톤 컬러 코디네이션, 2000.5. 화보5	52
<사진44> 톤인톤 컬러 코디네이션, 1997.7. 화보4	52
<사진45> 톤인톤 컬러 코디네이션, 1999.5. 화보7	52
<사진46> 콘트라스트 컬러 코디네이션, 1999.7. 화보8	52
<사진47> 콘트라스트 컬러 코디네이션, 1999.8. 화보1	52
<사진48> 액센트 컬러 코디네이션, 1997.5. 화보2	52

<사진49> 액센트 컬러 코디네이션, 1997.12. 화보6	53
<사진50> 액센트 컬러 코디네이션, 1999.6. 화보7	53
<사진51> 액센트 컬러 코디네이션, 1999.11. 화보5	53
<사진52> 트렌드 소품 코디네이션, 1999.1. 화보1	53
<사진53> 트렌드 소품 코디네이션, 1999.8. 화보5	53
<사진54> 트렌드 소품 코디네이션, 1999.10. 화보5	53
<사진55> 트렌드 소품 코디네이션, 2000.6. 화보1	56
<사진56> 액센트 소품 코디네이션, 1997.5. 화보1	56
<사진57> 액센트 소품 코디네이션, 1998.5. 화보4	56
<사진58> 액센트 소품 코디네이션, 1998.6. 화보5	56
<사진59> 액센트 소품 코디네이션, 1999.12. 화보1	56
<사진60> 액센트 소품 코디네이션, 1999.12. 화보1	56
<사진61> 이미지 소품 코디네이션, 1999.3. 화보7	60
<사진62> 이미지 소품 코디네이션, 2000.8. 화보1	60
<사진63> 이미지 소품 코디네이션, 2000.9. 화보1	60
<사진64> 소재의 이미지에 의한 코디네이션, 1999.5. 화보6	60
<사진65> 소재의 이미지에 의한 코디네이션, 1998.9. 화보1	60
<사진66> 소재의 이미지에 의한 코디네이션, 1998.10. 화보1	60
<사진67> 소재의 이미지에 의한 코디네이션, 1998.12. 화보5	61
<사진68> 이질적 질감의 소재 코디네이션, 1998.1. 화보5	61
<사진69> 이질적 질감의 소재 코디네이션, 2000.5. 화보1	61
<사진70> 이질적 질감의 소재 코디네이션, 2000.5. 화보3	61
<사진71> 유행소재에 의한 코디네이션, 1997.6. 화보4	61
<사진72> 유행소재에 의한 코디네이션, 1997.7. 화보5	61
<사진73> 체크패턴 코디네이션, 1999.12. 화보5	64

<사진74> 플라워문양 로맨틱룩, 2000.7. 화보5	64
<사진75> 헤링본 체크패턴 코디네이션, 2000.9. 화보7	64
<사진76> 신디 크로포드의 비키니룩, 1997.6. 화보1	64
<사진77> 오드리 마니의 캐리룩, 2000.1. 화보4	64
<사진78> 장 폴 고티에의 그루헨룩, 1998.12. 화보6	64
<사진79> 이세이 미야끼의 플리츠, 1997.3. 화보3	65
<사진80> 앙드레 김의 금박자수, 1997.12. 화보1	65
<사진81> 샤넬의 트위드 수트, 1999.8. 화보2	65
<사진82> 크리스찬 디올의 글렌체크, 1999.8. 화보2	65
<사진83> 설윤형의 오리엔탈룩, 1999.8. 화보4	65
<사진84> 루비나의 아방가르드룩, 2000.2. 화보2	65
<사진85> 구찌의 아나콘다 패턴, 2000.2. 화보2	71
<사진86> 꽃장식 헤어, 로맨틱룩, 1997.2. 화보4	71
<사진87> 웨이브 헤어, 엘레강스룩, 1998.6. 화보6	71
<사진88> 레트로 엘레강스, 2000.2. 화보3	71
<사진89> 에스닉, 2000.4. 화보1	71
<사진90> 아방가르드, 1997.9. 화보1	71
<사진91> 작품 I	78
<사진92> 작품 II	78
<사진93> 작품 III	78
<사진94> 작품 IV	78

I. 서 론

1. 연구목적 및 의의

현대사회로 오면서 패션계는 과거 정형화된 미보다는 각자의 개성과 다양성 차별성을 중시하는 경향으로 흐른다.

현대산업사회의 특징인 대량생산 체제의 기성복에서도 한 벌의 세트개념의 의상보다는 단품위주의 크로스 코디네이션이 가능한 제품들이 인기를 끌고 있으며 이것은 소비자의 패션의식 또한 성숙되어가고 있다는 사실로 받아들일 수 있다. 사람마다 얼굴, 체형, 품성, 느낌이 제각각 다르듯이 똑같은 의상을 입더라도 상황과 의도에 맞게 어떻게 어떻게 코디네이션 하느냐에 따라서 차별화 된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다.

그러므로 패션 디자인 못지 않게 이미 생산되어진 제품들을 어떻게 매치하여 연출하느냐의 패션 코디네이션이 패션의 한 분야로 자리매김해 나가고 있으며 패션 코디네이터라는 직업이 새롭게 등장하여 각광받고 있는 현실이다. 또한 헤어와 메이크업, 각종 소품 등 의상 외적인 요소의 비중이 심화되어 전체적인 조화를 중시하는 토탈패션으로 코디네이션의 연출개념이 중요하게 요구되고 있다.

앞으로 패션산업의 판도는 기성복시장이 대세를 이루며 따라서 패션 코디네이션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되고, 전문분야와 일반인의 실생활에 해당되는 대중적인 분야를 아우르며, 직업적으로 패션 코디네이션의 전문화와 대중적으로는 실용학문으로 그 필요성이 가속될 전망이다.

이렇듯 날로 중요해지는 패션 코디네이션의 선행연구는 미비한 실정으로 본 연구가 학문적 기틀을 잡아가고 있는 패션 코디네이션에 조금이나마 기여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연구를 수행하게 되었다.

따라서 최근 부상하고 있는 패션 코디네이션의 분야를 살펴보고 디자인 이 아닌 코디네이션의 관점으로 연출요소를 분류하고 이론적으로 정립하는 데 연구목적을 둔다. 구체적인 연구대상인 패션전문잡지화보의 코디네이션을 분석하여 정립된 패션 코디네이션의 이론이 실제 어떻게 연출되었고 연출에 있어 요소와 원리가 어떤 영향과 상호작용을 이루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패션 코디네이션의 특징을 밝혀내고자 한다.

더 나아가 일반적인 패션 코디네이션으로 확대 대입하여 총체적인 관계를 파악함에 연구의의를 둔다.

2. 연구대상 및 범위

문헌적 연구는 관련서적 및 선행연구를 토대로 패션 코디네이션을 연출 요소에 따라 분류, 체계화한다.

실증적 연구는 정립된 코디네이션 이론을 바탕으로 패션전문잡지의 패션화보를 선택하여 코디네이션을 분석한다. 패션을 전문으로 다루는 잡지 중 세계적으로 지명도가 높은 잡지 가운데 한국판 창간¹⁾이 가장 먼저 이루어진 엘르(ELLE)²⁾를 연구대상으로 한다. 범위는 1997년 1월호부터 2000년 12월호까지 4년치 48권으로 잡지기사 중 가장 비중 있게 패션이 다루어지는 화보 총 315꼭지를 선택하여 분석을 시도한다.

화보는 의도하고자 하는 주제에 따라 모델이 의상, 소품, 헤어, 메이크업

-
- 1) 92년에 ‘엘르(Elle)’ 한국판이 93년에 ‘마리끌레르(Marie claire)’ 한국판, 94년에는 ‘피가로(Figaro)’ 한국판, 96년에 ‘하퍼스 바자(Harper’s Bazaar)’, 97년에 ‘보그(Vogue)’ 한국판이 잇따라 창간되었다.
 - 2) 엘르 오리지널판은 1945년 프랑스 파리에서 ELLE를 제호로 창간되었으며 파리를 비롯하여 미국, 영국, 이탈리아, 독일, 일본, 중국 등 전세계 30개국에서 발행되는 국제적 패션전문지이다. 미국, 영국, 이탈리아, 일본 등에 이어 18번째로 1992년 11월호로 한국판 엘르가 (주)한국종합미디어에 의해 창간되었다.

등을 완벽하게 스타일링 하여 찍은 사진기사이기 때문에 토탈 코디네이션 파악이 용이하다. 화보는 패션의 내용을 전달하는 상업성과 예술성이 결합된 패션사진이다. 패션사진은 패션이 주체이며 그러한 패션을 표현하고 전달하는 매개체는 인간, 즉 모델이다. 이것은 복장만으로는 무의미한, 사람이 착장했을 때 비로소 존재의 가치를 부여받는다는 패션의 의미와 연관지어 생각할 수 있다. 특히 패션전문지라는 특성상 그냥 입는다는 단순개념에서 더 나아가 한 차원 높여 의도에 따라 입는다는 연출개념으로 보았을 때 전문적인 패션 코디네이션을 보여주는 비주얼 자료로는 최고인 셈이다.

또한 패션화보는 스타일을 연출하는 실행주체가 스타일리스트(진행기자)나 코디네이터(프리랜서)이므로 최근 직업적으로 부상하고 있는 코디네이터에 의해 연출된 스타일을 분석한다는 점에도 그 의의가 있다.

분석절차는 우선적으로 화보를 코디네이션의 요소에 입각하여 주제별로 분류하고 분류에 따라 개별적으로 스타일을(총 2145p) 분석하여 종합적 분석 결과를 도출해 낸다.

개별적 분석방법으로는 Marilyn Revell Delong의 'The Way We Look'에서의 체계적 접근방법³⁾에 기인하여 ABC⁴⁾의 관찰(viewing), 분석(analysis), 해석(interpretation), 평가(evaluation)의 4단계 지각과정에 근거한다.

3) Marilyn R. Delong(저), 금기숙(역), 「복식조형을 보는 시각」,(서울:도서출판 이즈), 1997. pp.13-21.

4) ABC(Apparel-Body-Construct) 의복과 인체가 형성하는 구조.

II. 이론적 고찰

1. 용어정의

1) 패션 코디네이션

사전적 의미로 살펴본 코디네이션(coordination)은 ‘동등하다, 통합하다, 조정하다, 배열하다, 조화를 이루다’의 코디네이트(coordinate)의 명사형으로 ‘대등하게 함, 통합, 조정, 일치’등의 의미를 지닌다.⁵⁾

복식에서의 코디네이션은 ‘조정하다, 조화를 이루다’의 사전적 의미에서 기인한 말로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인체와 피복전반에 걸쳐 행해진 연출상황을 의미한다. 양리나, 최나영⁶⁾과 허갑섬⁷⁾은 ‘패션 코디네이션’과 ‘패션 연출’을 동의어로 규정지었다.

패션용어로서 코디네이션이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대규모 비즈니스가 본격적으로 형성된 시기인 1960년대의 영 패션(young fashion)의 등장으로 인한 캐주얼 룩에서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있다.⁸⁾ 전후 베이비 블 세대들로 형성된 60년대의 영 패션은 이전의 세트개념의 포멀(formal)한 복장과는 다른 티셔츠, 점퍼, 진 팬츠, 미니스커트 등의 단품들을 매치 시키는 과정에서 아이템, 색상, 소재 등에 따라 조화롭게 연출하는 것이 중요한 의미를 지니게 되었다. 특히 마리 콘트(Mary Quant)에 의해 세계적으로 유행한 미니스커트의 등장은 칼라스타킹, 룽부츠 등의 소품으로까지 코디네이션의 영역을 확산시키는 계기가 되었으며 1970년대 유행한 레이어드 룩(layered look) 또한 패션 코디네이션의 필요성을 가속화하였다.⁹⁾

5) 「시사영어사/랜덤하우스 영한대사전」,(서울:YBM시사영어사), 199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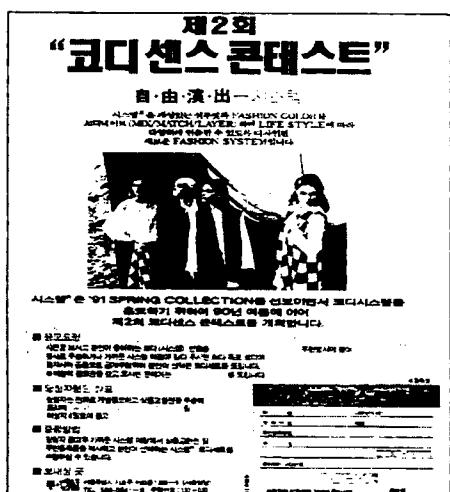
6) 양리나, 최나영(공저), 「패션연출」,(서울:대왕사), 2000, p.21.

7) 허갑섬, 「패션연출방법에 관한 조사 연구」,의류학회지, Vol.23, No.1, 1999, p.54.

8) 김영신, 「토탈 패션 코디네이션」,(서울:형설출판사), 2001, p.12.

이후 대량생산체제하의 기성복의 발달과 다양한 룩이 공존하는 현대산업 사회로 접어들면서 소비자의 의식 또한 성숙되어 유행을 받아들이면서도 남들과는 차별화 된 패션감각을 연출하고자 한다. 이러한 경향은 패션 코디네이션의 중요성을 한층 더 부각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우리 나라 역시 예외는 아니어서 기성복의 발달과 개성추구에 높은 가치를 두면서 코디네이션의 개념이 패션업계에 중요하게 인식되어 패션 디자인과 마케팅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그림1> ‘시스템’ 코디 콘테스트 포스터

<그림1>¹⁰⁾은 (주)한섬의 ‘시스템’ 브랜드에서 1991년 시행한 코디 시스템을 홍보하기 위한 행사의 일종으로 단품에 의한 크로스 코디네이션의 연출개념이 잘 드러난 사례로 볼 수 있다.

패션은 복식 그 자체로는 성립되지 않는다. 착용대상인 인간과 결합해야만 진정한 의미의 패션이 탄생된다. 복식은 인체에 입혀졌을 때 비로소 존재의 가치가 있다. 각각의 옷 자체가 가지는 디자인의 이미지와 사람이 착장했을 때의 이미지는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복식과 인간이 결합된 총체적 의미로서 패션 코디네이션이 이해되어야 한다.

또한 토탈패션(total fashion)의 개념으로 패션 코디네이션이 의복에만 국한되지 않고 소품은 물론 메이크업(make up)과 헤어스타일(hair style)을 포함한 상호 조화와 조합의 의미로 해석되고 있다.

9) 장애란 외2인(공저), 「패션 코디네이션」,(서울:예학사), 2000, p.11.

10) 라사라고육개발원, 「패션 스타일리스트」,(서울:(주)라사라패션정보), 2001, p.40.

2) 패션 코디네이터

사전적 의미의 코디네이터(coordinator)란 코디네이트(coordinate)에서 파생되어 ‘조정하는 것’ 또는 ‘조정자’를 의미하므로¹¹⁾, 패션 코디네이터(fashion coordinator)란 패션 조정자를 말한다.

현대 패션에 있어서 패션 산업의 발달로 인하여 패션업 종사자는 점점 전문 분야별로 세분화되어가고 있는 추세이며 기능에 따른 업무의 분업화와 전문화가 철저해지면서 새로운 직종의 패션 스페셜리스트들이 고도의 전문적 능력과 경험을 바탕으로 분야별 전문직종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코디네이터란 직업이 등장한 것은 불과 몇 년 전의 일이며 패션 뿐 아니라 요리, 인테리어, 여행 등 각 분야에 걸쳐 전문직업으로 정착되어 가고 있다. 패션 산업에 있어 코디네이터는 활동 분야별로 더욱 세분화 될 수 있는데 분야별로 업무 내용과 역할은 저마다 차이가 있다. 그러나 패션이란 모체 안에서, 사전적 의미 그대로 업무 또는 스타일을 조정한다는 역할의 측면에서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다.

한국의 패션 산업에서 코디네이터란 직함으로 활동하고 있는 사례를 종합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어패럴 메이커에서의 패션 코디네이터는 기업의 경영 방침과 브랜드 이미지 및 상품 성격 조정을 비롯하여 사내 각 조직 및 기능 간의 상호 조정 역할을 한다. 기획, 생산, 사입, 판매 및 판매 촉진 등의 각 부문별 활동을 원만하게 조정하여 효과적으로 마케팅을 촉진시키는 역할을 한다.¹²⁾

그러나 우리나라 패션 업체에서 실제로 이와 같은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은 머천다이저나 디자인 실장, 소규모 업체일 경우 오너가 이를 대신하며 따로 코디네이터를 두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간혹 홍보실이나 판촉실 소속

11) 「시사영어사/랜덤하우스 영한대사전」,(서울:YBM시사영어사), 1996.

12) 이호정, 「패션 스페셜리스트」,(서울:교학연구사), 1997, p.64.

으로 코디네이터란 직함을 갖고 광고 및 상품 협찬 업무를 전담하며 다른 파트와 연계하여 자체 브랜드 상품을 스타일링하는 경우는 있다.

둘째, 출판과 광고매체에서의 코디네이터를 들 수 있는데 이 분야는 매체에 따라 더욱 세분화 될 수 있다. 주로 잡지, 지면광고, C.F, 패션업체의 카탈로그 등에서 조정역할과 스타일링을 담당하는데 광고회사나 대행사에 소속되어 일을 하거나 프리랜서로 일하는 경우 두 가지로 현재는 소속 없이 프리랜서로 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셋째, 방송매체에서 활약하는 코디네이터로 공중파방송, 케이블방송, 인터넷방송, 홈쇼핑채널 등에서 각 프로그램을 맡아 등장인물의 스타일링을 담당하거나 특정 연예인이나 방송인을 전담하여 일하는 경우로 나눌 수 있다. 이 역시 방송사나 매니지먼트사에 소속되어 일을 하거나 프리랜서로 일하는 경우가 있다. 현시점에서 패션 코디네이터¹³⁾로 일반인들에게 가장 널리 인식되는 분야이기도 하다.

넷째, 영화에서 활약하는 코디네이터로 촬영이 들어가기 전부터 스텝의 중요한 일원으로 구성되어 등장인물의 배역에 가장 잘 어울리는 복장을 스타일링 한다. 영화의 내용에 따라 스타일링은 제작과 협찬으로 이루어지며 협찬 시 스폰서와의 조정역할이 중요하며 제작에 있어서는 무대의상디자이너의 개념으로 활약하기도 한다.

다섯째, 패션쇼에서 활약하는 코디네이터로 디자이너나 연출자의 의도에 따라 모델의 스타일링을 담당하고 원활한 진행을 돋는 일을 한다. 대개의 경우 프리랜서로 건당 계약하여 일을 하며 예이전시에 소속되어 일을 하는 경우도 간혹 있다.

그 외, 코디네이터라는 명칭을 사용하진 않지만 대상인물의 코디네이션

13) 코디네이터(41292): 방송이나 공연을 위하여 연예인의 성격, 분위기 및 출연 프로그램의 특성 등을 검토하여 화장, 의상과 장신구를 조화롭게 연출시키는 자를 말한다. 통계청 한국표준직업분류 (2000.1.7 고시)

을 조언하고 돋는다는 의미에서 샵 매니저와 이미지 컨설턴트가 코디네이터의 일부분의 역할과 맥을 같이한다.

최근에는 스타일리스트와 동의어 개념으로 코디네이터와 스타일리스트가 뚜렷한 구분 없이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다. 아직까지 이 분야의 역사가 짧고 정착되어 가는 단계라 그러하겠지만 앞으로 코디네이터와 스타일리스트의 용어가 확실히 정의되고 구분되어 사용되어져야 하겠다.

현재 프리랜서로 일하는 코디네이터는 팀을 이루어 조직적으로 일할 경우 여러 분야를 동시에 담당하거나 각 분야를 넘나들며 일을 하기도 한다.

패션 코디네이터란 직업으로 활약하는 가장 활성화된 분야가 방송(연예인), 출판(매거진), 광고 분야로 기존의 이론상으로 정립된 어페럴 메이커의 코디네이터의 개념과는 구분되어 사용되어져야 하겠다.

2. 코디네이션에 관한 선행연구

패션 코디네이션이 패션의 한 분야로 당당히 독립적 위치를 확립해 나가면서 코디네이션을 학문적으로 분석, 체계화시키려는 작업이 최근 들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패션 코디네이션, 코디네이터에 관련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박정훈(1990)의 “코디네이션의 연출에 관한 연구”는 개성연출을 위한 토탈 패션으로서의 메이크업을 중심으로 쓰여진 논문으로 의복과의 코디네이션에서 메이크업이 차지하는 비중을 밝히고 메이크업의 기본요소인 색채의 원리에 따라서 메이크업의 코디네이션을 살펴보았고 실증적 연구로 「'89, '90 A/W 트렌드 분류를 근거」¹⁴⁾로 8개의 이미지로 나뉘어 메이크업을 분석하였다.

이응도(1996)의 “색채이미지와 코디네이션에 관한 연구”는 색채계획의 전개방법과 아시아계 여성의 색채타입(Color Type), 즉 피부색에 따른 색채타입에 대해 분석하였고 또한 6가지 라이프 스타일을 나누어 그 이미지에 맞는 색채계획을 제시하고 있다.

이용희(1984)의 “패션산업에 있어서 Fashion Coordinator의 역할 연구”와 이지숙(1992)의 “한국 Fashion산업의 발달과 Fashion Coordinator역할에 관한 연구”에서는 상품기획과 패션 마케팅에 관계된 머천다이저의 개념으로 패션 코디네이터의 역할을 분석하였다. 따라서 오늘날 부각되고 있는, 본 논문에서 다루는 패션 코디네이터와는 다른 개념임을 알 수 있다.

임경순(1999)은 “현대 패션 코오디네이션 연구”에서 샤넬과 스키아파렐리의 작품을 연구대상으로 설정하여 디테일과 트리밍, 액세서리의 관점에서

14) 89-90 A/W Color Forecast:cloth Fashion System Co. LTD. Tokyo, Japan.
ICA(International Color Autorithy), 89-90 A/W, Forecast and Inspiration Ich Loop Selection, 89 A/W Astral Co. LTD. Tokyo, Japan.

코오디네이션을 분석하였다.

이송림(2000)의 “샤넬 이미지를 통한 패션 코디네이션 연구”는 샤넬 스타일을 튜블리 실루엣, 모자, 진주 목걸이, 카멜리아, 샤넬 N °5로 대표하여 코디네이션을 분석하였으며 현대적인 의미의 패션 코디네이션이 샤넬을 통해 최초로 인식되었다고 주장하였다.

신민영(2001)의 “개인체형에 따른 3D 패션 코디 시스템”에서는 컴퓨터를 이용한 3D 시스템 개발에 관한 논문이다.

패션 코디네이션의 개념이 생겨난 지 얼마 되지 않는 시점이라 이와 관련된 논문이 많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이동은(2001)의 “대중음악 분석을 통한 스타 패션의 특징 연구”는 대중음악과 대중가수의 패션을 분석하고, 대중가수들의 복식이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과 의미를 사회 현상적으로 연구 고찰한 논문으로 스타패션을 코디네이션의 관점에서 분석하진 않았으나 코디네이터의 활약이 부각된 방송분야 중 특히 대중가수의 복식을 연구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패션 코디네이션 관련 서적은 논문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으나 이 역시 패션 코디네이션의 중요성이 부각된 현시점인 최근에 대부분 쓰여졌음을 알 수 있다. 코디네이션을 연출개념으로 보았을 때 여러 가지 원리와 요소에 의해 분류하고 패션 전공자 뿐 아니라 실용학문으로서 비전공자들도 실생활에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일반독자들을 배려하여 쓰여진 의도가 역력하다. 공통적으로 이미지, 아이템, 체형, 색상, 소재, 소품, 라이프 스타일에 따른 코디네이션을 분류하고 그에 따른 기술적인 방법 또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저자마다 코디네이션을 분류하는 데 있어서 상, 하위 개념에 따른 챕터(chapter) 편성에 있어서는 조금씩 차이를 발견하게 된다.

이것은 모든 요소들이 한가지 독립적으론 존재할 수 없고 상호 관련이 되

어있기 때문에 어떠한 부분에 중점을 두느냐에 따라 편성이 달라질 수 있다. 본 연구자 역시 패션 디자인의 요소에 근거하여 패션 코디네이션의 요소별로 나누어 살펴보고 요소에 따른 코디네이션의 원리를 연출 방법적 개념으로 다루고자 한다.

3. 패션잡지 화보의 일반적 특성

잡지는 본질적으로 신문과 유사한 매스 커뮤니케이션의 하나로 특정한 이름을 가지고 일정한 간격으로 장기간에 걸쳐 간행되는 출판물이다.

매스매체(mass media)에 속하는 잡지(magazine)라는 말의 어원은 프랑스어 ‘magasin’에서 온 것으로 ‘창고’를 뜻한다. 즉 읽을거리를 차곡차곡 넣는 창고를 의미한다.¹⁵⁾ 잡지는 발행목적과 해당분야에 따라 다양한 유형으로 나뉠 수 있다. 유형에 따른 잡지는 전문분야를 다루는 특성이 있고 특별한 독자층을 형성한다. 우리나라에서 패션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잡지는 주로 라이선스지로 90년대 들어서 대부분 창간이 이루어졌다. 그 중 독자층을 염두에 둔 에이지 타겟에 의해 분류하기도 한다.

순수 국내 여성지에서도 패션기사로 화보가 다루어지긴 하지만 전문성에 있어서는 다소 떨어지는 편이다.

1) 화보의 특성과 역할

화보는 구성요건으로 보았을 때 시각적 정보에 의한 사진기사이다. 여기에 문자정보에 의한 언어적 요소로 제목과 캡션(caption)¹⁶⁾이 추가된다.

패션잡지가 갖는 특수성과 차별성이기도 한 화보는 시각적인 내용을 다루기 때문에 독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구체적이고도 감각적이다. 패션을 다루는 잡지에 있어서 사진기사는 친절하고 방대한 내용의 문자정보에 의한 기사보다 크나큰 설득력을 갖으며 내용전달에서도 확실한 기능을 담당한다. 패션이 갖는 비주얼한 요소 때문에 섬세하고 구체적인 설명보다 직접적인

15) 도은주, “잡지광고에 있어서 색채이미지가 소비자의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 연구”, (서울: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2001, p.5.

16) 사진기사에 실린 의상과 소품에 대한 간략한 설명과 브랜드, 가격, 구성스텝, 등의 내용으로 이루어짐

시각자료가 어필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화보는 기획된 주제에 따라 다양하게 패션 연출된 사진기사로 보통 4p 이상으로 구성된다. 또한 페이지마다 한 컷 내지는 양 페이지에 걸쳐 한 컷으로 편집된다. 독자들은 화보를 통해 전달하고자 하는 패션의 내용을 받아들이고 아울러 패션 트렌드나 코디네이션을 교육받는다. 또한 직접적인 광고 페이지 못지 않게 게재된 상품들의 간접적인 홍보에도 도움을 준다. 하나의 패션화보는 카탈로그 못지 않은 작품사진의 감동을 그대로 안겨준다. 패션작품사진을 찍을 때 보다 사진작가에게 제약이 따르긴 하지만 화보의 사진은 고도의 기술적인 면과 예술적인 면이 결합되어 높은 작품성을 기대할 수 있다.

2) 화보의 스텝구성

패션화보라는 결과물을 만들어내기 위한 주요 스텝구성은 에디터, 포토그래퍼, 코디네이터, 모델, 헤어 디자이너, 메이크업 아티스트로 이루어진다.

에디터(editor)는 기자를 지칭하며 화보의 진행을 총괄적으로 관할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경우에 따라 코디네이터 없이 화보의 스타일링을 병행하기도 한다. 일반 잡지사 기자에 비해 패션 전문 잡지사 기자는 패션에 관련된 전공자 출신이 많다.

포토그래퍼(photographer)는 화보라는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직접적이고도 기술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코디네이터(coordinator)는 모델이 착장하는 복장을 스타일링한다. 주로 잡지사에 소속되지 않고 프리랜서로 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최근에는 스타일리스트(stylist)와 혼용되어 사용되기도 한다.

모델(model)은 화보에서 복장을 착장하고 스타일이 연출되는 매개체로 토탈 코디네이션을 독자에게 전달하는 커뮤니케이션의 주체이기도 하다.

대개의 경우 패션모델이 선정되는데 특별한 경우 연예인을 쓰기도 한다. 모델은 공신력이 갖추어짐을 전제로 한다. 공신력은 전문성, 신뢰성, 매력성을 포함한다.¹⁷⁾

헤어 디자이너(hair designer)와 메이크업 아티스트(make up artist)는 모델의 헤어스타일과 메이크업을 담당한다.

그리고 각 담당분야마다 경우에 따라 어시스턴트(assistant)를 두어 원활한 진행을 돋도록 한다.

17) 오인숙, “모델 속성이 광고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 (충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7, P.3.

III. 패션 코디네이션의 요소

패션 디자인이 디자인의 요소와 원리에 근거하여 이루어지듯 패션 코디네이션 또한 디자인 요소와 원리를 토대로 살펴보고자 한다. 그러나 한가지 요소나 원리에 의해 결정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요소가 복합적으로 상호 작용을 하므로 한가지씩 나누어 살펴보고 종합적으로 해석 평가가 이루어져야한다. 부분적으로 살펴본 요소들의 특성은 일반적인 내용들이고 이것이 종합되었을 때는 예상치 못한 결과를 나타낼 수도 있다.

1. 아이템

복식에 있어서 아이템(item)은 각각의 의복을 지칭하지만 광의개념으로 소품까지 포함하기도 하므로 본 논문에서의 아이템은 통상적으로 말하는 ‘옷’에 해당하는 품목을 의미하기로 한다.

아이템은 의복 코디네이션에서 한 단위를 제공하며 아이템끼리의 매치가 얼마만큼 조화롭게 어우러졌는가는 패션 코디네이션의 평가를 좌우한다.

앞서 언급했지만 코디네이션의 요소로 분류한 각각의 요소들은 서로 상호작용을 이루므로 개별적으로 살펴본 후 종합적으로 평가가 이뤄져야 한다. 한 아이템은 색채, 소재, 문양을 동시에 포함하므로 본 논문에서 요소 안으로 분류한 아이템은 형태(form)나 디자인(design)에 초점을 맞춘 분류이다. 같은 아이템이라도 길이, 모양, 용도, 소재, 계절 등에 따라 더욱 세분화 되며 아이템마다 일반적인 특성이 존재한다. 각 아이템별 특성을 파악하면 원하는 스타일 연출에 도움이 된다. 형태나 디자인의 관점에서 본 아이템 별 코디네이션은 전체 스타일의 실루엣을 결정하며 체형 보정 코디네이션에서 색채와 함께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분류	아이템
전의류(全衣類)	원피스 드레스, 코트, 수트, 양삼블
상의류(上衣類)	재킷, 점퍼, 셔츠, 블라우스, 티셔츠, 탑, 베스트, 카디건, 스웨터
하의류(下衣類)	스커트, 팬츠

<표1> 아이템 분류

2. 소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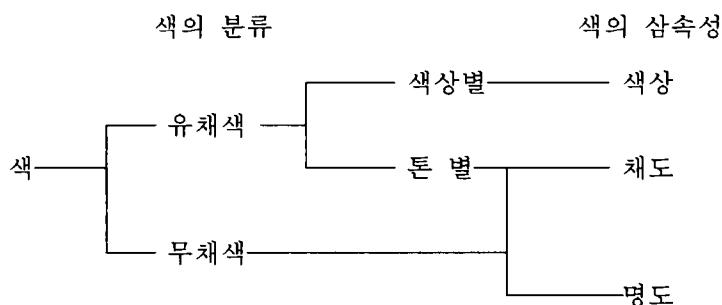
악세사리란 ‘부속물’, ‘보조물’이라는 뜻으로 광의로는 가방, 구두, 모자, 벨트, 장갑, 선글라스, 귀고리, 목걸이, 반지, 팔찌, 헤어핀, 시계, 스카프, 넥타이, 브로치, 그 외에도 장식을 목적으로 한 장식품을 뜻하고 협의로는 보석으로 된 장신구를 말한다.¹⁸⁾ 패션 코디네이션에서 소품(accessories)은 복장을 마무리하고 완성도를 높이는 역할을 하며 오늘날 패션 코디네이션이 주목받으면서 소품의 중요성도 한층 부각되고 있다. 똑같은 기성복을 입더라도 차별화 된 감각으로 개성을 연출하고자 할 때 손쉽게 변화를 줄 수 있는 방법이 소품을 이용한 코디네이션이다.

또한 적절한 소품선택은 의도하고자 하는 이미지 연출을 도와준다. 의복은 동일하더라도 소품의 변화만으로도 다른 분위기의 이미지 연출이 가능하다. 복식에서 의복을 제외한 소품은 기능적인 면과 장식적인 면을 동시에 갖는데 패션 연출 시 장식적인 면이 패션 코디네이션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한다.

18) 이인자, 신효정(공저), 「패션마케팅&코디네이션」,(서울:시공사), 2000. p.134.

3. 색채

색채(color) 코디네이션은 색이 가지고 있는 3가지 속성(색상, 명도, 채도)을 이용하여 복장을 연출하는 것을 말한다. 색의 체계<표2>¹⁹⁾와 색상, 명도, 채도에 따른 특성파악이 전제되어야 한다. 색채는 개인의 이미지 창조에 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으며 감성적인 요소를 가지므로 다소 개인차를 감안 하더라도 의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이며²⁰⁾ 의상뿐 아니라 헤어, 메이크업, 소품에 이르기까지 토탈 코디네이션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또한 색채는 계절과 룩(look)에 따른 이미지에도 영향을 미치며 체형에 의한 보정 코디네이션에서 중요한 요소로 이용된다. 색의 착시효과인 팽창색(expansive color)과 수축색(contractive color), 진출색(advancing color)과 후퇴색(receding color)을 잘 활용하면 체형커버에 도움이 된다.



<표2>색의 체계

19) 오희선, 박화순(공저), 「아름다운 여성을 위한 패션 코디」,(서울: 경춘사), 2000, p.22

20) 안명숙 외4인(공저), 「현대인의 패션」,(서울:예학사), 1999, p142.

1) 색채 배색과 패션 이미지

각각의 색채마다 고유의 이미지가 있으며 어떠한 이미지로 연출하느냐에 따라 의도적으로 색채가 선택되어 코디네이션될 수 있다<표3>²¹⁾

색채의 이미지와 함께 컬러 코디네이션에서 색채의 배색이 중요한 코디 테크닉으로 작용한다. 색은 형보다 표현적인 힘이 강하므로 단색으로 각각 지각될 때 보다 서로 조합되어서 어울릴 때 그 내포적인 힘이 강해진다.²²⁾

따라서 배색이란 두 가지 이상의 색을 특별한 효과나 목적에 알맞게 배치하는 것으로 심리적 팽창을 주는 색의 배색을 조화색이라 하며, 조화는 배색을 통하여 균형 있는 통일감과 변화를 갖출 때 얻어진다. 기본적으로 색상(Hue), 명도(Value), 채도(Chroma)를 위주로 배색한다.²³⁾

패션 코디네이션에서의 색채배색은 아이템끼리의 컬러매치가 관건이다.

가끔 참고서적 중 컬러 코디네이션에 관련된 자료사진을 보면 한 아이템 내에서의 컬러배색도 포함시키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직물자체의 무늬나 봉제에 의한 배색이므로 패션 디자인의 논리에 더 가까우므로 본 논문에서는 배제한다. 이것은 완성된 제품을 매치 시킨다는 코디네이션의 정의에 기초하기보다는 디자인에 입각하기 때문이다.

의복에서의 컬러 코디네이션은 소재의 재질감이 색상과 톤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소재의 변수를 감안한 아이템의 매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21) 류지원 외2인(공저), 「뷰티 코디네이션」,(서울:고문사), 2000, p.143.

22) 이윤주, "복식에 있어서의 색채 이미지에 관한 연구", (서울: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1992, p.15.

23) 유효순 외3인(공저), 「패션의 이해」,(서울:신광출판사), 2001, p128.

종류	패션 이미지	색상의 배색
캐주얼 (casual)	평상복 차림의 자유롭고 생동감 있는 감각으로 밝고, 즐겁고, 편안하고, 개방적인 이미지.	주로 청색조가 곁들여진 화려한 톤을 선호하며 활력적이며 밝은 톤과 적, 황, 황록, 보라 등의 색조가 중심.
시크 (chic)	조용하고 세련되며 지적인 이미지	수수하고 온화한 색조와 회색 톤을 사용하여 엘레강스보다 차가운 이미지를 나타냄.
클래식 (classic)	전통성과 윤리성을 존중하고 풍요로움을 추구하는 여유로운 이미지.	갈색톤을 중심을 적포도주색, 짙은 녹색, 겨자색 등의 탁색계와 중후한 느낌을 주는 난색계를 적절히 사용.
클리어& 쿨 캐주얼 (clear&cool casual)	클리어는 담백, 순수, 맑음, 청결, 단순, 산뜻, 깔끔의 이미지고, 쿨 캐주얼은 밝고 젊은 이미지.	상쾌하고 깔끔한 이미지를 표현하기 위해 백색계와 한색계의 밝은 톤이 중심이고, 난색계를 부분적으로 살려 캐주얼한 감각을 살리기도 함.
댄디 (dandy)	격조감과 침착함, 안정감이 있는 차분하고 남성적인 이미지로 완벽함을 추구.	어두운 톤이 중심이 되는데, 짙은 회색, 짙은 녹색, 짙은 갈색 올리브 그린 등 탁색계가 주를 이룸. 이외에 갈색계, 녹색계, 감색계, 검정색들을 조화시켜 차분한 분위기를 표현.
다이나믹 (dynamic)	정열이 있고 대담하며 활동적이고 강렬한 힘을 느끼게 하는 이미지.	정적인 느낌은 가급적 피하고 화려한 색상배색으로 색 대비감을 강하게 함.
엘레강스 (elegance)	품위있고 우아하며 세련된 분위기의 여성적인 이미지.	우아하고 색이 바랜 이미지를 나타내기 위해 짙은 탁색계를 중심으로 온화한 느낌을 나타내며 강한 느낌의 배색은 억제.
고어저스 (gorgeous)	화려하고 성숙하며 호화로운 이미지.	난색의 채도가 높은 중후한 느낌이 있는 톤을 사용. 짙은 느낌이지만 장식적이고 알찬 감각.
모던 (modern)	다소 차가운 분위기가 느껴지나, 간결미를 추구하며 현대적이고 도시적인 감각이 돋보이는 이미지.	무채색을 주조로 하며 차가운 분위기를 연출하고 도회적 감각을 살려 주는데, 흑백의 고명도 대비를 주로 사용함.
내추럴리즘 (naturalism)	자연이 포용하는 정다움이나 온화함, 친근함 등을 반영하는 이미지.	온화하고 부드러운 톤의 YR, Y, GY계를 중심으로 소박하고 친숙하며 자연미가 돋보이면서도 소재감을 살려주는 톤배색이 적합.
프리티 (pretty)	로맨틱보다는 약간 화려한 느낌이 드는 귀엽고 달콤한 이미지.	흰색과 밝고 부드러운 톤의 난색계를 주로 사용하며 또한 신선한 느낌을 표현하기 위해 연한 톤의 청록색을 함께 사용.
로맨틱 (romantic)	여성적인 이미지로 온순, 섬세, 서정적이고 부드러운 이미지.	파스텔조의 밝고 은근한 배색을 많이 사용하며, 짙고 부드러운 청색계와 백색계를 배합.

<표3> 패션 이미지에 의한 배색

2) 컬러 코디네이션 기법

(1) 원 컬러 코디네이션(one color coordination)

원 컬러 코디네이션은 한가지 색상으로 모든 아이템을 통일시켜 조합하는 방법으로 비교적 손쉽고 일반적으로 행해지는 코디네이션이다. 선택되어진 색에 의해 이미지가 좌우되며 역으로 원하는 이미지 연출을 위해 의도적으로 색을 선택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중성색을 선택하였을 경우는 차분한 이미지를 주고 원색이 선택되었을 경우 강렬한 이미지를 전달한다. 한 가지 색상이기 때문에 강한 메시지를 주기도 하지만 단조롭다는 단점이 있을 수 있다.

(2) 톤 온 톤 컬러 코디네이션(tone on tone color coordination)

톤온톤이란 ‘톤을 겹친다’라는 의미로 색상은 동일하게 하고 명도와 채도를 달리하여 코디네이션 하는 방법이다. 톤²⁴⁾이 다르기 때문에 원 컬러 코디네이션에 비해 리듬감을 느낄 수 있으며 톤 차이가 클수록 다채롭다.

명도 차가 작은 고명도 끼리의 배색은 경쾌하고 명랑하며, 중간명도끼리의 배색은 변화가 적고 단조롭다. 저명도 끼리의 배색은 무겁고 답답하며 어두운 느낌을 준다. 명도 차가 큰 고명도와 저명도의 배색은 명확하고 명쾌한 느낌을 주므로 확실히 눈에 띈다. 채도 차가 작은 고채도와 고채도의 배색은 자극이 강하고 화려한 느낌을 준다. 중채도와 중채도의 배색은 안정감 있고 점잖은 느낌을 주며, 저채도와 저채도의 배색은 점잖고 약한 느낌을 준다. 채도 차가 중간인 고채도와 중채도의 배색, 중채도와 저채도의 배

24) 톤(tone): 톤의 개념은 ‘명도와 채도를 포함하는 복합개념’으로 색상과는 관계하지 않는 색조에 해당하는 것이다. 무채색을 제외한 유채색은 12가지 톤(vivid, strong, bright, pale, very pale, light grayish, light, grayish, dull, dark grayish, dark, deep)으로 분류할 수 있다.

색은 점잖고 안정된 느낌을 준다. 채도 차가 크게 나는 고채도와 저채도의 배색은 화려하지만 안정된 느낌을 주고, 색이 사용된 면적에 따라 주는 느낌이 달라진다.²⁵⁾

(3) 톤 인 톤 컬러 코디네이션(tone in tone color coordination)

명도와 채도는 동일하고 색상을 달리하여 같은 계열의 톤으로 코디네이션하는 방법이다. 색상이 다르더라도 톤이 같으면 통일감을 느낄 수 있으며 선택되어진 톤에 따라서 이미지가 달라진다.

같은 톤 안에서의 배색은 명도 차는 있으나 채도가 같은 배색이 되기 쉬우므로 통일되기 쉽고, 평온한 느낌의 조화가 얻어진다.

(4) 콘트라스트 컬러 코디네이션(contrast color coordination)

색의 3속성에서 서로 반대되는 색의 조화를 말한다. 명도, 채도, 색상에 따라서 밝은 색과 어두운 색, 짙은 색과 얕은 색, 색상환에서의 반대방향에 위치한 보색간의 조화를 들 수 있다. 이 컬러 코디의 특징은 강렬하고 선명함, 자극적이고 화려한 느낌을 준다는 것이다. 따라서 강한 인상을 주고 싶을 때 효과적인 컬러 코디네이션 연출법이다. 대표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콘트라스트 배색이 명도 차에 의한 블랙&화이트 코디네이션과 보색대비 코디네이션이다.

특히, 보색대비 코디네이션은 반대적인 시각 특성 때문에 강렬한 효과를 주는 반면 매우 자극적이고 대담하기 때문에 싫증을 빨리 느끼고 자칫 춘스럽게 보일 수 있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콘트라스트 컬러 코디네이션을 할 때 주의할 점은 색의 면적 비율을 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보색 컬러 코디네이션은 주로 액센트 컬러로 사용하는 경우가 무난하다.

25) 류지원 외2인(공저), 앞의 글, pp.141.142

(5) 액센트 컬러 코디네이션(accent color coordination)

전체적인 메인 컬러 외에 액센트 컬러를 더해주어서 포인트를 주는 경우이다. 액센트 컬러는 강렬한 원색이나 메인 컬러의 반대색일 경우가 많으며 전체를 긴장하게 하는 역할을 하며 복장에서 차지하는 면적이 적다. 주로 소품에 액센트 컬러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액센트 컬러가 사용된 부분으로 시선이 집중되는 효과가 있다.

(6) 세퍼레이션 컬러 코디네이션(separation color coordination)

유채색의 배색 사이에 무채색을 하나 끼워 넣는 방법이다. 색상 매치의 중간에 분리색(separation color)을 넣어 서로의 색상이 잘 조화되게끔 하는 역할을 한다. 이때 분리색은 어느 색상과도 조화롭게 어울리는 모노톤의 검정이나 흰색이 주로 사용된다.

뚜렷한 이미지를 표현할 때는 화이트, 긴장된 이미지를 표현할 때는 블랙, 명쾌한 이미지를 표현할 때는 사용된 색상을 분리시킬 수 있는 강렬한 색상을 사용하면 효과적이다. 근래에는 무채색과 함께 금속성 색상을 세퍼레이션 컬러로 사용하고 있다.²⁶⁾ 그러나 이 세퍼레이션 컬러 배색은 아이템에 의한 코디네이션 보다는 직물 자체의 색상배색이 주를 이루는 경우가 많다.

26) 유현주 외2인(공저), 「토털 뷰티 코디네이션」,(서울:일진사), 2001, p.54.

4. 소재

현대 패션은 소재(fabric)²⁷⁾의 싸움이라 할 만큼 날로 소재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의류 회사마다 소재 개발에 중점을 둬 타 브랜드와의 차별화를 모색하고 있으며 직조와 가공 기술의 발달로 새로운 신소재가 속속들이 등장하고 과거에는 의복의 소재로는 상상하기 힘든 비닐이나 메탈 종류의 다양한 소재들이 사용되기도 한다. 의복은 문양이 없고 디자인이 심플할수록 소재가 부각되며, 같은 디자인이라 할지라도 소재에 따라 이미지가 달라질 수 있다.

소재는 의복에 있어서 시각과 촉각에 의해 얻어지는 재질감(texture)을 제공한다. 이러한 재질감이 패션 코디네이션의 변수로 작용된다.

재질감은 섬유, 실, 직물 조직, 가공(처리) 등에 따라 결정된다. 즉, 같은 섬유라 할지라도 직조 방법 또는 가공에 따라 재질감(표면 효과)이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일반적인 섬유의 특성보다는 재질감에 따라 소재를 분리하고 그에 따른 성질이나 이미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패션 연출 목적에 맞게 소재의 특성(재질감)을 살리는 것이 코디네이션의 포인트이다. 연출하고자 하는 이미지에 따라 그에 맞는 소재의 의상을 선택하여 코디네이션 할 수 있다<표4>²⁸⁾

27) 본 논문에서의 소재는 실(yarn) 또는 섬유(fiber)를 적당한 방법으로 집합시켜 만든 비교적 얇고 충분한 표면적을 갖는 평면상의 물질, 즉 원단(fabric)을 의미 한다.

28) 유태순 외3인(공저), 「패션 코디네이션의 이해」,(서울:학지사), 1999, p.115.

분위기	표면특성	촉감	빛 반사력	가능한 직물
스포티한	약간 매끄러운, 따뜻한	단단한, 치밀한, 유연한, 견고한, 탄력 있는	불투명한, 광택이 없는	개버딘, 피케, 데님, 포플린, 샤크스킨
젊은	약간 매끄러운, 따뜻한, 변화하는	뻣뻣한 또는 부드러운, 유연한, 단단한	불투명한 또는 광택이 없는, 반투명한, 투명한	깅엄, 프리제, 오간디, 바티스트, 틀, 아일릿, 태피터, 캘리코
세련된 우아한	매끄러운, 미끄러운, 차가운, 어느정도 거친	나긋나긋한, 얇은, 고운, 탄력있는, 유연한 또는 호사스러운	반짝이는 또는 광택이 없는, 반투명한, 투명한	새틴, 크레이프, 저지, 시퐁, 벨벳
사무적인	약간 매끄러운, 약간 따뜻한	뻣뻣한 또는 단단한, 치밀한, 견고한	불투명한, 광택이 없는	개버딘, 충편성물, 소모직물, 브로드클로스
캐주얼한	약간 거친, 따뜻한, 까칠까칠한	부드러우면서 단단한, 중간정도로 거친, 유연한	불투명한, 광택이 없는, 반투명한	코듀로이, 플란넬, 편성물, 펠트직물

<표4> 재질감에 따른 심리적 분위기 연상

소재끼리 매치에 따른 코디네이션은 동일한 소재에 의한 코디네이션, 비슷한 소재에 의한 코디네이션, 이질적 소재에 의한 코디네이션을 들 수 있다. 소재 역시 체형 보정 코디네이션에서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작용한다.

소재가 주는 중량감과 부피감, 광택, 피트(fit)감을 활용하여 체형 커버를 할 수 있다.

5. 문양

문양(pattern)은 직물, 조각 등을 장식하는 여러 가지의 모양을 의미한다. 패션디자인에서의 문양은 일반적으로 무늬를 말한다. 옷감의 무늬는 개념상으로 모티프(motif)와 패턴(pattern)으로 나누는데 모티프는 문양을 이루는 기본 단위의 형태이며 패턴은 모티프가 모여서 이루는 문양의 전반적인 형태를 말한다. 무늬는 선이나 색채, 재질을 동시에 포함하고 있으므로 무늬 자체의 선과 형이 조화를 이루어야 함은 물론 색채와 재질과도 잘 어울려야 한다.²⁹⁾

문양은 선염에 의한 직조과정에서 생기는 무늬와 직조 후 완성된 직물 위에 날염에 의해 생기는 무늬, 기타 자수나 패치워크로 형성된 무늬 등으로 나뉠 수 있다. 문양은 모양자체에 따라 이미지를 달리하며 패턴의 크기, 배치, 색상 등에 따라서도 변화한다. 문양은 소재 안에 종속되지만 따로 떼어 살펴보기로 한다.

1) 문양과 패션 이미지

문양 역시 문양 자체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이미지가 있으며<표5>³⁰⁾ 패션 코디네이션시 연출하고자하는 분위기에 따라 그에 해당하는 문양의 의상을 선택하는 일차적인 방법이 있을 수 있으며 연출 테크닉으로 문양과 문양의 매치를 들 수 있다.

패턴과 패턴의 매치에서 중요한 것은 같은 무늬라도 컬러에 따라 동질감을 주기도 하고 이질감을 주기도 하므로 컬러의 조화가 매우 중요하다.³¹⁾

29) 유효순 외3인(공저), 앞 글, 2001, p.138.

30) 류지원 외2인(공저), 앞 글, pp.150-153.

유태순 외3인(공저), 앞 글, pp.124-126. pp.132-139.

31) 이인자, 신효정(공저), 앞 글, 2000, p.130.

종류	특징	분류 및 대표적 무늬		이미지
자연 문양	자연에서 접할 수 있는 것, 주로 동물과 식물을 주제로 하여 사실적으로 묘사한 무늬와 간략화 시킨 악화 무늬가 있다.	동물	호랑이, 지브라, 표범, 젖소, 벤	야성적, 도전적, 섹시
		식물	플라워, 트로피칼	여성적, 화려함
		자연현상	구름, 산 etc	내추럴,
기하 학 문양	원, 사각형, 삼각형 등의 단순한 기하도형과 점의 크기, 선, 면의 배열 및 분할, 평면과 입체, 공간구성, 강약의 느낌 등과 같은 조형적인 요소가 규칙적 또는 불규칙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체크	깅엄, 타탄, 하운드 투스, 세퍼드, 글렌, 마드拉斯, 아가일	전통적, 클래식, 트레디셔널
		스트라이프	핀, 쵸크, 더블, 블록, 얼터네이트	남성적, 스포티, 모던, 심플
		도트	핀, 코인, 폴카, 팬시	단순, 명쾌, 명랑
		옵티컬, 그래픽		화려함
전통 문양	각 나라마다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고유한 문양으로 민족 특유의 미의식, 종교, 사상, 자연환경, 문화적 여건 등이 반영되어 특징적인 양식을 갖추고 재창조 되면서 전해 내려오고 있다.		페이즐리, 사라사, 바틱, 다마스쿠스, 오리엔탈(한국, 중국, 일본)	에스닉, 오리엔탈, 신비로움
추상 문양	추상이란 20세기 초 큐비즘의 출현으로 대상에 대한 견해를 감정을 제외한 순수 도형으로서 표현하는 것을 가리킨다. 추상패턴은 일정한 사물의 형태를 갖추고 있지는 않지만 선과 색을 자연스럽게 조화시켜서 형태감을 느끼게 한다.			자유로움, 활동적
기타 문양	문자나 숫자를 소재로 사용	타입패턴		젊음, 개성적
	만화를 모티프로 함. 주로 아동복에 많이 사용	카툰, 디즈니, 캐릭터 패턴		
	바다와 관련된 소재 사용	마린패턴		
	다양한 사물들을 모티프로 사용	오브젝트 패턴		

<표5> 문양의 종류와 이미지

문양과 문양의 코디네이트는 실패할 우려도 있지만 효과적으로 조합하면 신선한 감각을 발휘할 수 있다.³²⁾ 문양은 시선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어 신

체부위를 강조하거나 확장시켜 보이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패턴의 방향이나 크기를 고려하여 의상을 선택하면 체형 보정 코디네이션에 도움을 준다.

보통은 패턴물이 들어간 의상을 입을 경우 같이 매치 되는 아이템은 무지(solid)일 경우가 많다. 패턴물에 들어있는 색상 중 하나를 선택하여 무지의 컬러를 결정하면 무난하다.

2) 문양 코디네이션 기법

(1) 동일한 무늬의 코디네이션

같은 무늬로 된 의상을 통일시켜 입는 법으로 특별한 테크닉 없이 보통 슈트나 투피스 등 한 벌로 제작되어진 의상일 경우가 대부분이다.

동일한 무늬일지라도 색상과 크기를 달리하여 변화를 줄 수 있다.

(2) 유사한 무늬의 코디네이션

비슷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무늬끼리의 조화로 같이 매치 되었을 때 동일한 이미지를 선사하며 통일감을 주는 경우이다. 예를 들어 비슷한 모양과 크기를 가진 체크무늬끼리의 매치, 야성적인 느낌의 애니멀 패턴끼리의 매치 등을 들 수 있다.

(3) 이질적 무늬의 코디네이션

서로 상반되는 이미지를 가진 무늬끼리의 조화로 모순적인 특성이 충돌하게 되면 산만해 보인다. 전문적인 테크닉을 요하며 일반적으로 행하여지는 않는다. 예를 들어, 여성적이고 로맨틱한 꽃무늬와 딱딱하고 직선적인 스트라이프 패턴은 서로 어울리지 않는다. 이러한 패턴끼리의 매치는 일반적이지 않아 거부감을 느끼게 해 촌스럽게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32) 오희선, 박화순(공저), 앞글, p.169.



점을 이용하여 어떠한 강한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할 때 의도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6. 헤어 & 메이크업

현대는 메이크업과 의상, 악세사리, 헤어스타일 등의 조화가 이루어져야만 완벽한 코디네이션이 연출된 것으로 비로소 진정한 상품적 가치를 발휘하는 시대이다.³³⁾ 패션 코디네이션의 범주는 복식전반에 해당되지만 오늘날은 토탈 패션 코디네이션의 개념으로 헤어와 메이크업을 같이 다루어 주고 있다. 하나의 스타일을 연출할 때 헤어와 메이크업은 복식의 완성도를 높이는데 지대한 역할을 하며 이때 의복과의 조화가 무엇보다 우선 시 되어야 한다. 또한 헤어, 메이크업은 독립적으로 전문화, 세분화, 구체화되어 독자적인 학문적 위치를 정립해 가는 추세이며 특히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 과거보다 현저한 발전을 이루어 나가고 있다. 한편으론 뷰티(beauty)의 범주안에 헤어와 메이크업을 분류하고 패션과는 구분 짓기도 하지만 최종적으로는 의복과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하나의 스타일을 완성하므로 패션 코디네이션에 있어서는 하나의 범주 안에 다루어주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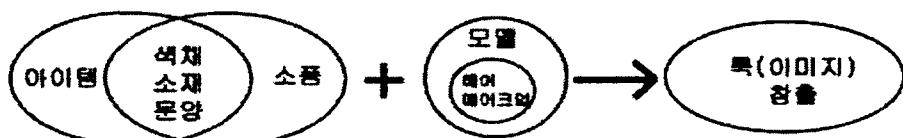
헤어스타일과 메이크업에 따라 사람의 이미지 변화가 가능하고 의도하고자 하는 패션 스타일에 따라 그에 맞는 이미지의 헤어스타일과 메이크업 연출이 가능하다. 이때 의복과의 조화가 우선 시 된다. 의복과의 조화에 있어서는 메이크업의 색채와 머리모양이 주된 요인으로 작용하며 의복에 따라 메이크업의 색조와 헤어스타일이 결정되곤 한다.

33) 박정훈, “코디네이션의 연출에 관한 연구”, (서울: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 논문), 1990, p.5.

7. 모델

색이나 형태, 그 외의 장식적 요소를 가진 의복은 그 자체에 있어서 다양한 느낌이 포함되어 호소력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복식으로 완성되기까지는 착용하는 것을 필요충분조건으로 한다.³⁴⁾ Hollander가 “모드는 단지 모드의 이미지를 통해 전달되고, 패션은 이미지에서의 패션이지 옷에서의 패션이 아니다”라고 언급했듯이 패션은 단순한 외모 뿐 아니라 그 사람의 정신과 감정, 미적 감각을 포함한 총체적인 것이다.³⁵⁾ 즉, 복식과 인간이 서로 만났을 때 하나의 이미지를 창출하며 창출된 이미지를 패션 코디네이션의 완성으로 볼 수 있다. 복식까지는 이미지가 동일하더라도 모델에게 입혀졌을 때 착용자의 개성에 따라 이미지가 달라질 수 있다. 이것은 착용자의 얼굴, 체형, 미적 감각이 다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패션 코디네이션은 착용자의 상태파악이 전제되어야 한다.

이상에서 살펴본 코디네이션의 요소를 도식화로 정리하면 <표6>과 같다. 각각의 요소들이 종합되어 룩(이미지)을 연출하게 된다. 이때 어느 요소가 중점적으로 부각되어 연출되었느냐에 따라 개별적으로 부각된 요소를 그 스타일의 코디네이션으로 대표하여 말할 수 있다.



<표6> 패션 코디네이션의 과정

34) 橫川公子, 「의복의 위상」,(도서출판:경춘사), 1998, p.26.

35) 이송림,“샤넬이미지를 통한 패션 코디네이션 연구”,(동덕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1999, p.7.

IV. 패션 잡지 화보의 코디네이션 분석

1. 화보의 일반적 분석

본 연구의 분석대상인 엘르 한국판 1997년 1월호부터 2000년 12월호 까지 총 315꼭지 화보의 지면 구성을 살펴보면, 매 달 5~12개의 화보가 기획되었으며 화보 당 2~14페이지로 이루어졌다. 평균적으로 매 달 6~8개의 화보와 화보 당 6, 8 페이지 구성이 가장 많이 이루어졌다.

모델 없이 소품만을 찍은 소품 화보는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라이선스 잡지의 특성상 외국화보기사가 국내화보기사와 함께 지면을 구성한다. 이는 엘르 프랑스판 화보를 직접싣기 때문에 패션 선진국의 최신 경향을 동시에 접할 수 있다는 장점으로 작용한다. 외국기사와 국내기사의 비율은 97년도는 외국기사의 비율이 높다가 98년 이후부터는 국내기사가 조금 더 많이 기획되었다. 그러나 98년 10, 11월호와 99년 2월호에서 특별히 국내 단독 브랜드에 의한 스페셜화보가 기획되었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거의 대등한 비율로 화보구성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표7>.

화보에 실리는 의상 및 소품의 브랜드는 외국 명품 브랜드, 국내 디자이너 브랜드, 국내 내셔널 브랜드로 구성되었는데 국내화보기사에서도 외국 명품 브랜드로 많이 진행을 하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외국 명품브랜드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스텝은 기자, 모델, 포토그래퍼, 메이크업 아티스트, 헤어 디자이너의 필수인원으로 구성되고 필요에 따라 코디네이터를 쓰기도 하였다. 기자를 제외한 스텝들은 프리랜서로 구성된다.

본 논문의 핵심인 패션 연출 즉, 화보 주제에 따른 패션 코디네이션은 기자(코디네이터 없이 진행할 경우) 또는 코디네이터가 담당한다.

프리랜서 코디네이터를 둘 경우 패션 코디네이션은 코디네이터가 담당하고 기자는 촬영에 관계된 전반적인 사항을 핸드リング한다.

코디네이션을 기자가 담당했을 때는 스텝표기를 '스타일리스트'로 하였으며 프리랜서가 코디네이션을 담당했을 때 스텝표기를 프리랜서는 '코디네이터', 기자는 '진행'으로 표시했다. '99년 4월호 부터는 스타일리스트와 진행 이란 말 대신 '패션 에디터'로 표기했다. 또한 스페셜 화보('98.10.화보7-11, '99.2.화보8-12)의 경우 프리랜서가 기자의 역할과 코디네이터의 역할을 모두 담당했을 때에는 스텝표기를 스타일리스트로 하였다. 이처럼 '스타일리스트'가 좀 더 포괄적인 개념으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월 년 화보수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합	
'97	국내 기사	2	2	1	3	3	3	4	2	3	4	3	3	33 (42.3%)
	외국 기사	5	3	4	3	3	3	3	4	4	3	5	5	45 (57.7%)
'98	국내 기사	3	3	4	4	3	3	3	1	3	9	9	4	49 (62.8%)
	외국 기사	3	2	2	3	1	4	2	4	2	2	2	2	29 (37.2%)
'99	국내 기사	5	9	4	5	4	4	5	4	4	2	3	3	52 (60.5%)
	외국 기사	2	3	3	3	3	3	3	2	3	3	3	3	34 (39.5%)
'00	국내 기사	2	3	3	3	4	3	3	4	4	3	3	3	38 (51.4%)
	외국 기사	3	3	3	3	2	3	3	4	3	3	3	3	36 (48.6%)

<표7> 국내화보기사 대 외국화보기사 비율

2. 화보의 주제별 코디네이션 분석

1) 화보의 주제

엘르 한국판 1997년 1월호부터 2000년 12월호까지의 총 315개의 화보를 주제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표8> <표9>.

한가지 주제에 초점에 맞추어진 화보와 두, 세 가지의 주제가 대등하게 다루어진 화보, 한가지 주된 주제와 보조 주제가 결합된 화보로 나눌 수 있다. 주제는 룩, 아이템, 색채, 소품, 소재, 문양, 디자이너(브랜드), 모델의 8 가지 테마에 따라 기획되었다.

제3장 코디네이션의 요소로 분류한 7가지에 근거하여 화보의 주제별 코디네이션을 살펴볼 수 있다. 다만, 앞서 분류한 헤어와 메이크업은 코디네이션의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잡지에서는 패션화보기사 외에 뷰티기사가 따로 있기 때문에 특별히 헤어와 메이크업을 화보의 주제로 표면화하진 않았다. 그러나 헤어와 메이크업이 화보의 주제연출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또한 이 7가지 외에 디자이너(브랜드)를 화보의 주제로 삼은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화보는 디자이너(브랜드)에 초점이 맞추어져 기획되었기 때문이다. 디자이너(브랜드)단독 화보일 경우 룩의 공동주제가 제시된 경우는 룩으로 분류하였다.

그러나 디자이너(브랜드)끼리 조인된 화보 중 디자이너(브랜드)별로 주제가 다른 경우 7가지 연출요소 중 특별히 어느 한, 두 가지로 대표할 수 없다. 대개 디자이너별 컬렉션 작품소개나 브랜드별 트랜드 제시기사가 이에 해당하는데 이 점은 화보라는 한 단위로 끊어서 분석하였기 때문에 디자이너(브랜드)가 주제인 화보 안에서도 세부적으로 분류 가능하지만 공동주제가 제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연출요소 외에 디자이너(브랜드)로 분류하게 되었다. 화보의 주제별 비중은 <표10>과 같다.

연도.월	연출주제	연도.월	연출주제
'97. 1	색채5, 룩1, 색채&룩1	'98. 1	아이템1, 룩2, 디자이너1, 아이템&소재1, 룩&모델
'97. 2	디자이너1, 아이템1, 아이템&룩1, 룩2	'98. 2	룩1, 아이템2, 색채&룩1,
'97. 3	디자이너2, 룩&아이템2, 브랜드1,	'98. 3	룩2, 아이템1, 소품1, 아이템1, 소재&룩1
'97. 4	모델1, 룩&모델3, 아이템&모델1, 룩&아이템&모델1	'98. 4	룩1, 소재&룩1, 색채&룩1, 아이템3, 소품1
'97. 5	색채&소품2, 소품1, 색채1 아이템&색채1, 룩1,	'98. 5	소품3, 아이템&소품1
'97. 6	아이템&모델1, 아이템2, 색채&룩1, 소재1, 소품1	'98. 6	아이템2, 아이템&룩1, 문양1, 아이템&소품1, 색채&룩1, 색채1
'97. 7	아이템2, 룩&아이템2, 색채&룩1, 소재1, 소재&룩1	'98. 7	아이템&룩2, 룩2, 아이템&색채1.
'97. 8	룩4, 아이템1, 소품&룩	'98. 8	아이템2, 룩&아이템1, 모델1, 룩1
'97. 9	룩6, 아이템1,	'98. 9	소재1, 아이템2, 브랜드&모델1, 룩&아이템1
'97. 10	디자이너2, 아이템1, 룩3, 소재1	'98. 10	소재1, 모델1, 색채2, 소품1, 디자이너1, 룩5,
'97. 11	룩5, 이미지1, 소재&아이템1, 아이템1	'98. 11	소재2, 아이템2, 룩3, 색채1, 디자이너1, 브랜드1, 소재&가격1
'97. 12	아이템&룩3, 색채2, 브랜드1, 아이템1, 룩1	'98. 12	룩1, 소품1, 아이템2, 소재1, 룩&모델1

<표8> 연도, 월 별 화보의 주제

연도.월	연출 주제	연도.월	연출주제
'99. 1	소품2, 아이템1, 아이템&소품1소재1, 룩2	'00. 1	색채2, 색채&룩1, 룩1, 디자이너1
'99. 2	룩4, 룩&색채1, 소품&룩&소재1, 소품1, 색채2, 아이템1, 룩&아이템2,	'00. 2	룩3, 브랜드1, 색채1, 모델1
'99. 3	룩5, 아이템1, 아이템&소품1	'00. 3	소품2, 룩2, 아이템1, 룩&소품1
'99. 4	아이템2, 룩5, 소품1,	'00. 4	룩4, 아이템1, 소재1,
'99. 5	룩3, 아이템1, 디자이너1, 소재1, 색채1	'00. 5	아이템1, 소재2, 룩1, 색채1, 소품1
'99. 6	아이템2, 룩1, 소품1, 색채&룩1, 소재1, 색채&소품1	'00. 6	소품1, 룩3, 룩&모델1, 아이템1
'99. 7	룩2, 아이템2, 색채2, 색채&아이템1, 아이템&룩1,	'00. 7	룩2, 아이템1, 룩&모델1, 문양1, 소품1
'99. 8	색채1, 디자이너2, 소품1, 아이템2	'00. 8	색채&룩&소품1, 브랜드1, 모델1, 룩5,
'99. 9	룩6, 아이템1	'00. 9	룩&소품1, 룩4, 아이템1, 색채&문양1
'99. 10	디자이너2, 룩1, 소재1, 소품1	'00. 10	룩4, 문양1, 룩&아이템1
'99. 11	아이템3, 룩1, 룩&아이템1, 색채&아이템1	'00. 11	룩&아이템2, 룩3, 아이템1
'99. 12	색채&소품1, 소재1, 룩1, 문양1, 모델1, 룩&아이템1	'00. 12	룩4, 아이템1, 아이템&소재1

<표9> 연도, 월 별 화보의 주제

화보 연출주제	'97	'98	'99	'00	계
룩	40/78 (51.3%)	30/78 (38.5%)	39/85 (45.9%)	45/74 (60.8%)	154/315 (48.9%)
색채	15/78 (19.2%)	8/78 (10.3%)	12/85 (14.1%)	7/74 (9.5%)	42/315 (13.3%)
소재	5/78 (6.4%)	9/78 (11.5%)	6/85 (7.1%)	3/74 (4.1%)	23/315 (7.3%)
문양	0/78 (0%)	1/78 (1.3%)	1/85 (1.2%)	3/74 (4.1%)	5/315 (1.6%)
아이템	23/78 (29.5%)	26/78 (33.3%)	25/85 (29.4%)	12/74 (16.2%)	86/315 (27.3%)
소품	5/78 (6.4%)	9/78 (11.5%)	12/85 (14.1%)	8/74 (10.8%)	34/315 (10.8%)
디자이너 (브랜드)	8/78 (10.3%)	6/78 (7.7%)	5/85 (5.9%)	3/74 (4.1%)	22/315 (7%)
모델	7/78 (9%)	5/78 (6.4%)	1/85 (1.2%)	5/74 (6.8%)	18/315 (5.7%)

<표10> 화보의 주제 비율

룩에 따른 연출이 가장 많았으며 아이템, 색채, 소품, 소재 순으로 나타났다. 화보의 주제별 코디네이션에 대해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 주제별 코디네이션 분석

(1) 룩을 주제로 한 화보

룩이 주제로 기획된 화보는 가장 많은 비율로 나타났다. 이것은 제 3장 패션 코디네이션의 요소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각각의 요소가 종합되어 하나의 룩을 연출한다는 맥락에서 가장 포괄적인 개념으로 이해될 수 있다. 룩이 주제로 구성된 화보는 <표11>과 같다.

연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97	마린, 로맨틱, 모던2	로맨틱 세사	캐미니! 캐주얼 아방가로드, 로맨틱	소피스 트 케이 리조트 티드	에티브 캐주얼 하이킹 세사	오리엔탈3, 아라비안, 에스닉	모던2, 아방가로드, 핑크, 섹시, 레트로,	모던, 소피스트 케이비드, 캐주얼	모던, 오리엔탈, 모던, 체즈, 핑크, 클래식	엘로이미지, 로맨틱2, 아웃도어, 웨스턴		
'98	오리엔탈, 하이 세사	시티, 리조트	로맨틱2, 캐미니!	루즈, 아방가로드, 로맨틱	워크엔드, 엘레강스	비치 리조트, 리조트로, 로맨틱	캐미니!, 아방가로드	캐미니!, 아방가로드	밀리터리, 페미니2, 캐주얼2	큐트 캐주얼2	아웃도어, 베르테	
'99	캐미니!, 캐주얼 아웃도어, 모던2	로맨틱, 아방가로드, 시티, 에스닉, 아웃도어, 모던2	글래미, 로맨틱, 레트로, 워크엔드, 스포티	퓨처, 소피스트 케이티드, 보이시, 엘레강스, 캐주얼	캐미니! 바캉스 발리리나	리조트2, 하이 리조트	캐주얼, 캐주얼, 캐주얼, 캐주얼	캐주얼, 캐주얼, 캐주얼, 캐주얼	민트지, 코자 스쿨걸	파티, 스쿨걸		
'00	아방가로 드, 캐비	레트로2, 엘레강스	소피스 트 케이 리조트 로맨틱	캐미니2, 레트로, 트레블링, 로맨틱	크루즈 캐미니! 로맨틱	리조트3, 에스닉	클래식, 아방가로드2, 레트로2, 페미니1	노스텔직, 캐주얼, 페미니!, 레트로2	엘레강스, 스노브, 페미니!, 페미니!	파스트리 아디, 커플, 레트로 파티		

화보에서 연출된 룩은 이미지, 계절, 장소에 따라 세분화될 수 있다.

① 이미지에 의한 룩.

화보의 제목에서 룩과 이미지는 비슷한 개념으로 사용되어 두 단어를 바꿔 사용하여도 무리가 없다. 예를 들어 로맨틱 룩과 로맨틱 이미지는 같은 의미로 제목에 사용되었다. 이미지가 감성적 언어라면 룩은 시각적 언어로 룩이 이미지보다 구체적이고 형상적이다.

'97년부터 2000년까지 다양한 이미지와 룩이 기획되었는데 크게 로맨틱, 소피스티케이티드, 아방가르드, 에스닉, 모던, 액티브, 엘레강스 이미지가 주류를 이루고 이러한 이미지에서 파생된 다양한 룩들이 기획 연출되었다<사진1, 2, 3, 4, 5, 6, 7, 8, 9>. 이밖에 웨스턴, 밀리터리, 메르헨룩, 매니쉬, 컨트리 등 기타 개성강한 스타일도 기획 연출되어 구색을 맞추었다<사진10, 11>. 연도별로 살펴봤을 때 뚜렷한 특징이 파악되는 부분은 다음과 같다.

97년 8월호에는 특별히 화보전체가 에스닉한 이미지의 오리엔탈룩, 아라비안룩, 에스닉룩으로 기획 연출되었고 98년 봄 3,4월호에는 로맨틱 이미지로, 2000년은 전체적으로 20세기의 다양한 레트로룩이 고르게 기획되었다<사진12, 13, 14, 15, 16>. 이것은 '97년 가을은 에스닉모드, 98년 봄은 로맨틱 모드, 2000년도는 레트로모드의 유행경향으로 해석될 수 있다.

그리고 같은 이름의 룩이 기획되더라도 어떠한 관점으로 연출했느냐에 따라 항상 다양하고 새로운 룩으로 재해석되었다<사진17, 18>.

② 계절에 의한 룩

월간지의 특성상 계절에 민감하게 영향을 받으며 그에 따라 화보의 주제도 결정된다. 12월호에는 크리스마스와 송년모임을 염두한 파티룩이, 바캉스시즌인 6, 7월호에는 리조트룩, 비치룩이 변함없이 기획되었다<사진19>.

이것은 목적에 근거한 것이다. 봄에 로맨틱룩이 상대적으로 빈도가 높게 나타났다. 이것은 계절이 주는 이미지와 관련이 있다.

③ 장소에 의한 룩

장소에 중점을 둔 룩으로는 위크엔드룩, 아웃도어룩, 비치룩, 크루즈룩, 트레블링룩을 들 수 있으며 그에 걸맞은 장소를 섭외하고 촬영되어 코디네이션의 완성도를 높였다<사진20, 21>.

(2) 아이템을 주제로 한 화보

아이템을 주제로 한 화보는 매 시즌별 트렌디 아이템을 소개하거나 계절을 대표하는 아이템을 다루거나 그 외 룩이 공동주제일 경우 그 이미지에 맞는 특정 아이템을 채택하여 기획 연출되었다. 또한 이질적 아이템끼리의 믹스 앤 매치 코디네이션이 의도적으로 기획 연출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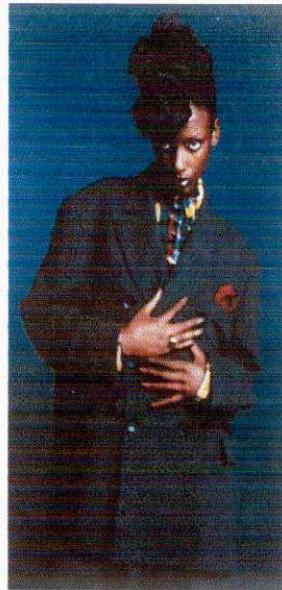
① 트렌디 아이템별 코디네이션

유행 아이템이란 주제로 특정한 한가지 아이템을 선정하여 화보를 구성하거나 한 화보 내에 페이지마다 다양한 유행 아이템을 선정하여 연출되었다.

97년 2월호 화보5에서는 지퍼 디테일이 포인트인 캐주얼한 의상들을, 9월호 화보7에서는 베이직 수트를, 97년 11월호 화보8에서는 맥시코트를 선보였다. 98년 8월호 화보1에서는 깊게 파인 슬릿 스커트를 화보2에서는 플리츠 스커트를, 98년 12월호 화보4에서는 발목까지 내려오는 코트, 원피스, 스커트의 맥시라인 아이템을 선정하였다<사진22, 23, 24>. 99년 4월호 화보1에서는 심플한 투브 드레스, 시스 드레스를 유행 아이템으로 선정하였고 99년 7월호 화보7에서는 액티브한 배기팬츠를 선정하여 몸에 붙는 톱과



<사진1> 오리엔탈룩,
1997.11. 화보2



<사진2> 재즈룩
1997. 11. 화보5



<사진3> 히피룩
1998. 1. 화보4



<사진4> 스포티캐주얼룩,
1999.3. 화보5



<사진5> 집시룩,
1999. 9. 화보5



<사진6> 아방가르드룩,
2000.8. 화보3



<사진7> 섹시 엘레강스
룩, 2000.2. 화보3



<사진8> 모던룩,
2000.11. 화보4



<사진9> 모던룩,
2000.11. 화보4



<사진10>웨스턴룩,
2000.6. 화보3



<사진11> 컨트리룩(코지
룩) 1999.10.화보2



<사진12>1970s 아메리칸
캐주얼룩, 2000.2. 화보1



<사진13> 1970s 레트로룩, 2000.2.화보5



<사진14>1920s 레트로룩, 2000.9.화보3



<사진15> 1960s 레트로룩, 2000.10.화보6



<사진16>1960s 레트로룩(팝룩), 2000.11.화보5



<사진17> 폐미닌하게 푼평크룩, 2000.9.화보4



<사진18>와일드하게연출한 평크룩, 2000.11.화보3



<사진19> 리조트룩
2000.6. 화보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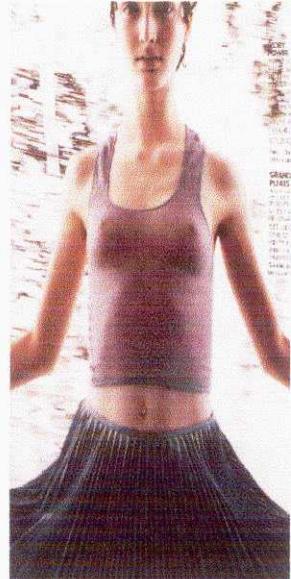
<사진20>아웃도어룩,
1998.12. 화보1



<사진21> 크루즈룩,
2000.7. 화보1



<사진22> 슬릿 스커트,
1998. 8. 화보1



<사진23>폴리츠 스커트,
1998. 8. 화보2



<사진24>맥시라인아이
템, 1998. 12. 화보4

보석 박힌 샌들과 매치 하여 약간은 여성스럽게 연출하였다<사진25>.

99년 8월호 화보3에서는 프라다 단독화보로 미러 아플리케 편청 디테일의 의상들을 선보였고<사진26> 화보6에서는 니트솔, 크롭트 팬츠, 인디고 블루 진 등을 유행아이템으로 소개하였다. 99년 9월호 화보2에서는 슬림한 팬츠에 퍼프소매 재킷, 중국풍 재킷, 비드장식된 카디건 스타일 재킷 등 정형성을 탈피한 수트를, 2000년 6월호 화보6에서는 여유로운 실루엣의 아이템들을 선정하여 루즈(loose)하게 연출하였다.

② 계절을 대표하는 아이템별 코디네이션

월간지 잡지의 특성상 계절을 고려해 계절성이 강한 아이템들이 선정되는데 봄, 가을은 수트 중심으로 여름엔 수영복, 비치웨어, 원피스를 겨울엔 다양한 코트나 스웨터 위주로 선정하여 코디네이션되었다.

97년 12월호 화보7에서는 패딩류나 스웨터, 모직코트 등 보온성이 뛰어난 아이템들로 아웃도어 분위기를 연출하였으며<사진27> 98년 1월호 화보1에서는 특별히 전통한복을, 화보5에서는 스웨터를, 98년 3월호 화보 5에서는 수트를 선정하여 연출하였다. 98년 5월호 화보3에서 원피스, 98년 6월호 화보1, 화보5에서는 수영복, 98년 7월호 화보1에서는 비치웨어, 98년 7월호 화보3에서도 수영복이 선정되었다. 99년 3월호 화보7에서는 수트, 99년 6월호 화보1에서는 비키니 수영복에 캐주얼한 스커트나 스웨터, 가죽부츠를 코디하였으며 99년 7월호 화보3, 화보4, 화보6에서도 다양한 수영복을 소개하거나 비치룩과 발레리나 룩으로 연출하기도 하였다<사진28>. 99년 11월호 화보2에서는 다양한 코트를 캐주얼한 부츠와 함께 경쾌하게 연출하였으며 99년 11월호 화보5에서는 블랙과 화이트의 심플한 코트를 선택하여 연출하였다. 2000년 7월호 화보2에서는 다양한 원피스들로 2000년 9월호 화보5에서는 다양한 스타일의 수트를 소개하였고 2000년 12월호 화보2에서는 코트

를 중심으로 일상적인 타운웨어 스타일로 코디네이션 하였다.

③ 룩의 이미지와 아이템별 코디네이션

룩과 아이템이 공동주체일 경우 각 룩의 이미지에 맞는 아이템을 특별히 부각시켜 연출하였는데 예를 들어 로맨틱 룩일 경우 이브닝 드레스가 많이 선택되었으며, 섹시 룩일 경우 노출이 많은 디자인이나 몸에 피트 되는 아이템, 아방가르드 룩일 경우 독창적이고 전위적인 디자인의 아이템, 베이직 또는 미니멀한 룩일 경우 심플한 아이템, 워크엔드 룩이나 아웃도어 룩일 경우 스포티하고 캐주얼한 아이템, 오리엔탈 룩이나 히피룩, 평크룩, 밀리터리 룩, 매니시룩, 페미닌룩 일 경우 그러한 요소로 디자인된 아이템에 비중을 실어 코디네이션 하였다.

97년 2월호 화보4에서는 하늘거리며 얇게 비치는 소재, 부드럽게 흘러내리는 실루엣, 대담한 노출로 보디라인을 드러내는 란제리 품의 ‘슬립드레스’를 장미꽃 머리장식과 하이힐과 함께 코디하여 로맨틱하게 연출하였고<사진29> 98년 8월호 화보3에서는 ‘롱&슬림 실루엣의 아이템’으로 페미닌 룩을 연출하였다. 99년 11월호 화보1에서는 나일론, 퍼, 가죽소재와 지퍼, 벨크로 디테일의 ‘캐주얼한 점퍼’들을 트레이닝팬츠, 장갑, 후드티, 부츠 등 스포티 아이템과 매치 하여 통일감있게 연출하였다<사진30>. 99년 11월호 화보4, 12월호 화보6에서는 ‘체크무늬 스커트’, ‘더플코트’ 등의 클래식 아이템으로 스쿨걸 룩을 연출하였다<사진31>. 2000년 4월호 화보2에서는 ‘편안한 수트, 니트 스웨터, 셔츠, 데님팬츠 스트랩리스 원피스’ 등의 아이템으로 품위 있는 트레블링 룩을 연출하였고 2000년 10월호 화보5에서는 ‘A라인, H라인, 뉴룩라인’과 복고적 디테일의 의상과 소품으로 레트로룩을, 2000년 11월호 화보1에서는 ‘멀티컬러 트위드, 폴리츠 스커트, 웰팅백, 카멜리아’ 등으로 샤플룩을 연출하였다<사진32, 33>.

④ 이질적인 아이템끼리의 코디네이션

97년 7월호 화보2에서는 언더웨어를 스포츠 소품(신발, 공, 양말, 헬멧) 등과 함께 코디하여 액티브하고 유머러스하게 연출하였고<사진34> 8월호 화보2에서는 기모노 스타일의 하프코트를 원피스, 솟팬츠, 매니시한 정장풍 바지와 함께 매치해 오리엔탈 아이템과 모던한 아이템을 믹스시켜 코디하였다. 97년 10월호 화보4에서는 남성적요소와 여성적요소의 언밸런스한 매치를 시도하였고<사진35>, 98년 4월호 화보5에서는 란제리 아이템을 엘레강스한 의상과 믹스매치 하였다. 98년 6월호 화보4에서는 브레지어를 레이어드로 겹쳐입고 루즈한 셔츠나 카디건을 오픈하여 색다른 시도로 연출하였고 98년 9월호 화보5에는 동양풍 아이템에 청바지, 청재킷을 코디하여 오리엔탈 무드가 가미된 빈티지 캐주얼 룩을 연출하였다<사진36, 37>. 2000년 11월호 화보6에서는 프릴 블라우스와 코르사쥬의 폐미닌한 아이템과 매니시한 재킷 또는 코트로 이질적인 레이어드 룩을 연출하였다<사진38, 39>. 2000년 12월호 화보4 또한 이질적인 분위기의 아이템끼리 코디네이션 하였다.

(3) 색채를 주제로 한 화보

색채를 주제로 한 화보는 트렌디 컬러나 특정 컬러를 정하여 원 컬러 코디네이션, 톤온톤 컬러 코디네이션, 톤인톤 컬러 코디네이션, 콘트라스트 컬러 코디네이션, 액센트 컬러 코디네이션의 기법에 따라 연출되었다.

계절별로는 봄에는 파스텔 컬러, 겨울에는 블랙, 화이트 컬러가 주로 다루어 졌다. 또한 블랙과 화이트 컬러는 계절에 관계없이 비교적 고르게 선택되었으며 룩과 아이템에 있어서도 다양하게 선택되어 가장 변화의 폭이 넓고 포괄적인 컬러로 연출되었음을 알 수 있다. 블랙과 화이트의 컬러배색은 콘트라스트 컬러 코디네이션으로 가장 많이 시도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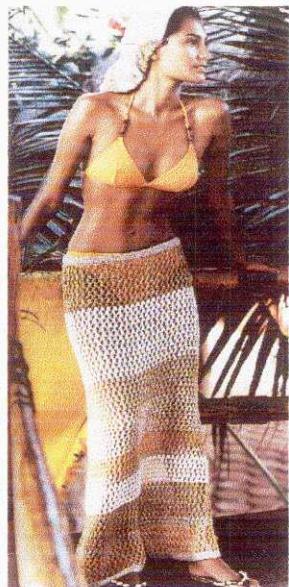
<사진25> 배기 팬츠,
1999. 7. 화보7



<사진26>미러아플리케
편칭디테일, 1999.4.화보4



<사진27>패딩아이템,
1997.12. 화보7



<사진28> 비키니룩
1999.7. 화보3



<사진29> 로맨틱룩
1997. 2. 화보4



<사진30> 스포티아이템
1999.11. 화보1



<사진31>체크스커트,
스쿨걸룩 1999.12. 화보6



<사진32>복고라인실루엣
, 2000.10. 화보5



<사진33> 샤넬디테일,
2000.11. 화보1



<사진34>이질적아이템매
치, 1997.7 .화보2



<사진35>남.여성적아이
템매치, 1997.10. 화보4



<사진36>브래지어레이어
드룩 1998.6. 화보4



<사진37> 오리엔탈 빈티지룩, 1998.9. 화보5



<사진38> 남.여성 믹스앤매치 2000.11. 화보6



<사진39>남.여성적 믹스앤매치, 2000.11. 화보6



<사진40> 원 컬러 코디네이션, 1997.12. 화보3



<사진41> 원 컬러 코디네이션, 2000.1.화보2



<사진42> 원 컬러 코디네이션, 2000.5. 화보5

특별히 97년도 1월호는 총 7개의 화보 중 6개의 화보가 색채를 주제로 기획되었으며 2000년 1월호는 총 6개의 화보 중 3개의 화보가 화이트 컬러를 주제로 하여 색채 위주로 기획되었다.

① 원 컬러 코디네이션

하나의 색상으로 전체를 통일한 원 컬러 코디네이션은 97년 1월호 화보7의 블루, 초콜릿색으로 이지룩을, 5월호 화보4에서 블랙 드레스, 12월호 화보3 역시 블랙아이템<사진40>을 선정하여 연출하였다.

98년 2월호 화보3에서 핑크, 레드, 옐로우, 오렌지, 연두색의 각각 다섯 가지 유행컬러로 꾸민 리조트룩을, 98년 6월호 화보7에서는 블랙과 화이트 컬러로 리조트 룩을 연출하였고 7월호 화보3에서 강렬한 원색 및 형광컬러의 수영복 아이템, 10월호 화보3에서는 가을 유행컬러로 블랙, 화이트, 그레이를 선정하여 연출하였다. 99년 2월호 화보2에서 화이트 아방가르드 룩, 화보5에서 화이트 아이템, 6월호 화보5에서 블랙컬러 리조트 룩, 7월호 화보4에서 블랙컬러 수영복, 11월호 화보5에서 블랙과 화이트 코트, 2000년 1월호 화보1, 화보2, 화보3에서는 화이트, 5월호 화보5에서는 핑크, 레드, 옐로, 그린, 바이올렛, 블루로 의상은 물론 소품, 메이크업도 통일되게 원 컬러 코디네이션 되었다<사진41, 42>.

② 톤 온 톤 컬러 코디네이션

97년 1월호 화보4에서는 그린컬러를 주제로 이너웨어를 톤을 달리하여 컬러 매치 하였고 화보6에서는 블루계열 의상과 소품, 메이크업으로 오리엔탈룩을 연출하였다. 98년 2월호 화보3의 다섯 가지 유행컬러로 꾸민 리조트 룩 중에서 의상과 소품이 각각의 컬러별로 톤온톤 컬러 코디네이션 되었으며 4월호 화보3에서는 파스텔 컬러로 2000년 2월호 화보4는 핑크, 5월호 화

보5에서는 각 트렌드 컬러에 따라 톤온톤 컬러 코디네이션되었다<사진43>.

③ 톤 인 톤 컬러 코디네이션

97년 1월호 화보1에서는 겨울철 의상을 강렬하고 따뜻한 난색으로 연출하였는데 핑크+레드, 핑크+레드+오렌지 아이템끼리 매치로 두, 세가지 컬러 중 주조색을 선택하고 나머지 아이템의 면적비중을 고려하여 코디네이션하였다. 1월호 화보2는 카멜+그레이 두가지 색상 배색으로 화보1과는 달리 둘 다 뒤지 않는 컬러라 색상끼리 마찰하지 않는다. 따라서 색상의 비율이 거의 대등하게 상, 하의 아이템에 배색되어 코디네이션 되었다. 97년 7월호 화보4는 레드와 베이지컬러가 비슷한 톤으로 색상과 아이템별로 대등한 비율로 코디네이션 되었다<사진44>. 98년 4월호 화보3에서는 파스텔 컬러끼리 톤인톤 컬러 매치 되었으며 99년 5월호 화보7은 베이지가 주조색에 그레이, 핑크, 블루가 컬러매치 되었고<사진45> 7월호 화보5는 핑크+화이트, 2000년 1월호 화보2는 화이트+아이보리 또는 베이지로 톤인톤 컬러 코디네이션 되었다. 따라서 고명도 고채도의 톤으로 통일하였을 경우 주조색과 보조색의 비율로, 저명도 저채도의 톤일 경우 면적비율에 구애받지 않고 코디네이션됨을 볼 수 있다.

④ 콘트라스트 컬러 코디네이션

97년 1월호 화보5에서는 블랙과 옐로우의 어둡고 밝은색의 색 대비가 강한 컬러매치가 주조색과 액센트 컬러로 사용되거나 상, 하의 반반씩 대등한 비율로도 코디네이션 되었다. 97년 5월호 화보6, 6월호 화보2에서는 블랙과 화이트의 컬러매치로 주조색과 소품에 액센트 컬러를 사용하여 연출되었으며 98년 6월호 화보6, 99년 7월호 화보8에서 역시 블랙과 화이트의 컬러매치로 연출되었다<사진46>. 99년 8월호 화보1에서는 블랙+화이트, 블

랙+옐로우, 블랙+블루, 블랙+레드의 강렬한 컬러매치가 시도되었고 <사진47> 2000년 9월호 화보7 또한 블랙+화이트로 콘트라스트 컬러 코디네이션 되었다.

⑤ 액센트 컬러 코디네이션

97년 1월호 화보5에서 블랙+옐로우, 화보7에서 블루+초콜릿의 컬러 매치 시 액센트 컬러는 이너웨어와 모자, 스타킹 등의 악세사리에 사용되었다. 97년 5월호 화보2의 '컬러풀한 색상의 여름구두'처럼 색채와 소품이 주제인 경우 컬러풀한 색상의 여름구두를 부각시키기 위해 의상은 심플한 블랙 아이템으로 코디하여 구두색이 액센트 컬러로 연출되었다 <사진48>. 97년 12월호 화보6의 화이트 룩에서도 의상은 화이트로 통일하고 구두만 블랙으로 코디하여 변화를 주었다 <사진49>. 99년 6월호 화보7에서는 화이트 의상에 원색의 소품이 액센트 컬러로 사용되었다 <사진50>. 99년 7월호 화보8에서는 화이트 의상에 두건, 목걸이 등의 원색 소품과 빨간색 립스틱이 액센트 컬러로 사용되었고 11월호 화보5에서는 블랙+화이트 컬러 코디로 주로 소품에 나머지 색을 액센트 컬러로 사용하였다 <사진51>.

블랙과 화이트는 주조색으로 많이 사용되었고 기타의 색이 액센트 컬러로 매치되었다. 무채색인 블랙과 화이트는 유채색을 돋보이게 하는 컬러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4) 소품을 주제로 한 화보

복장을 마무리하고 완성도를 높이는 소품이 주제로 기획된 화보는 유행 경향에 따라 트렌드 제품을 선정하여 소개하거나 연출하고자 하는 룩에 해당하는 소품으로 제품이 전체스타일에서 액센트 구실을 하도록 연출되었다. 특별히 98년 5월호 화보는 전체적으로 소품에 포커스를 맞추어 기획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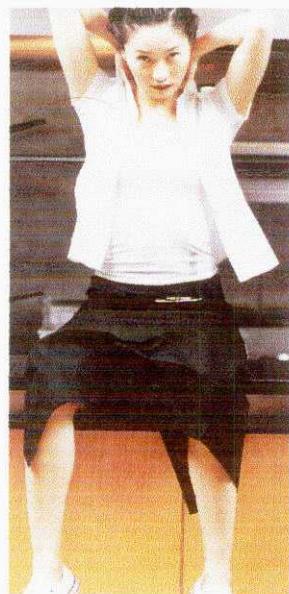
<사진43> 톤온톤 컬러코디네이션, 2000.5. 화보5



<사진44> 톤인톤 컬러 코디네이션, 1997.7. 화보4



<사진45> 톤인톤 컬러코디네이션, 1999.5. 화보7



<사진46> 콘트라스트컬러 코디네이션, 1999.7. 화보8



<사진47> 콘트라스트컬러 코디네이션, 1999.8. 화보1



<사진48> 액센트 컬러코디네이션, 1997.5. 화보2



<사진49> 액센트 컬러 코디네이션, 1997.12. 화보6



<사진50>액센트 컬러 코디네이션, 1999.6 화보7



<사진51>액센트 컬러 코디네이션, 1999.11. 화보5



<사진52> 트랜드 소품코디네이션, 1999.1. 화보1



<사진53> 트랜드 소품코디네이션, 1999.8. 화보5



<사진54> 트랜드 소품코디네이션, 1999.10. 화보5

① 트렌디 소품 코디네이션

98년 10월호 화보4에서는 FW 유행신발 4가지를 클로즈업 촬영하였으며 99년 1월호 화보1에서는 매니시한 신발이 테마로 성숙한 여성미의 롱스커트와 코디네이션 하였다<사진52>. 화보4에서는 캐주얼 악세사리를 소개하였고 99년 4월호 화보3에서는 간결한 커팅과 강렬한 색상의 악세사리를 소개하였다. 99년 6월호 화보3에서는 매끈한 디자인, 시원한 금속장식의 캐주얼 악세사리, 플랫 펌프스, 샌들, 남성적인 선글라스 등을 소개하였고 99년 8월호 화보5에서는 앤디밀 패턴과 매끈한 실루엣의 롱부츠를 탱크 톱이나 팬티의 언더웨어와 코디하여 부츠를 강조하였다<사진53>.

99년 10월호 화보 5에서는 벨벳, 체인, 크리스탈, 레이스, 뱀피, 송치 등 호사스런 소재와 디테일의 백, 벨트, 스카프, 구두, 목걸이, 모자를 럭셔리하게 연출하였다<사진54>. 2000년 3월호 화보1에서는 화이트부터 파스텔의 달콤한 색상과 고급스러운 질감의 가죽소재 시계, 백, 샌들 등의 봄 악세사리를 블랙, 화이트, 베이지의 단색의상과 코디하여 클로즈업 촬영하였다. 2000년 3월호 화보4에서는 메탈릭 소재의 섹시하고 대담한 디자인의 하이힐과 목걸이, 클러치백 등을 클로즈업 촬영하였고 2000년 6월호 화보1에서는 화려한 색상과 프린트의 모자, 가방, 물, 선글라스를 소개하였다<사진55>.

화보의 주제가 트렌디 소품일 경우 코디네이션된 상황보다는 클로즈업 촬영된 경우가 많아 유행제품을 제시한다는 정보의 기능이 더 높았다.

② 액센트 소품 코디네이션

소품이 액센트로 작용하는 경우는 소품 색상을 의상과 다르게 매치하거나 대담한 사이즈나 화려한 디자인으로 시선이 소품으로 주목되도록 코디네이션된 경우이다. 97년 5월호 화보1에서는 심플한 의상에 대담한 악세사리를 매치해 포인트를 주었고<사진56> 98년 4월호 화보6에서는 베이직한 화이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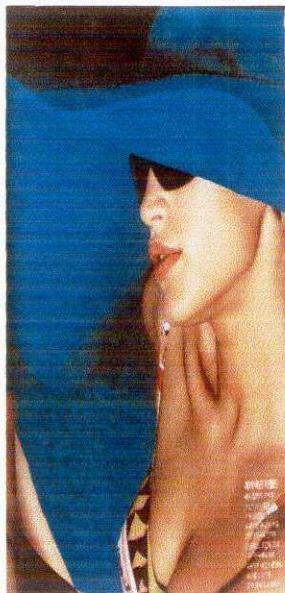
셔츠, 블랙 중절모 등의 매니시 모드에 모던한 디자인의 다이아몬드 악세사리를 코디하였으며 98년 5월호 화보2에서는 블루, 옐로, 레드 원색의 정장풍 핸드백을 화이트 의상과 함께 코디하여 소품이 컬러 액센트가 되는 코디네이션을 연출하였다. 화보3에서는 심플한 여름의상에 투명하고 반짝이는 실버, 크리스탈 악세사리로 포인트를 주었으며 화보4에서는 심플한 그레이 색상의 의상에 메탈소재의 큼직한 악세사리로 포인트를 주었다<사진57>.

98년 6월호 화보5에서는 수영복 아이템과 공동주제로 기획되었는데 수영복에 이국적 정취를 느끼게 해주는 대담한 목걸이, 팔지 발지 등 에스닉풍 악세사리를 코디네이션 하였다<사진58>.

99년 1월호 화보5에서는 심플한 의상에 모자, 백, 목걸이로 포인트를, 99년 6월호 화보7에서는 꽃무늬 패턴의 강렬한 원색 백을 화이트 의상에 매치하여 액센트를 주었다. 99년 12월호 화보1에서는 노멀한 블랙 의상에 라쿤 솔을 매치하거나 대담한 브로치, 귀걸이, 모자를 매치 하여 포인트를 주었고<사진59, 60> 2000년 5월호 화보6에서는 선명한 플라워 프린트 원피스, 비즈장식 톱 등 화려한 의상에 대담한 골드 악세사리를 매치 하여 더욱 화려함을 강조하였다. 이처럼 소품이 액센트로 작용하는 경우, 의상은 심플한 스타일로 코디네이션 되었음을 알 수 있다.

③ 룩과 소품 코디네이션

97년 5월호 화보3에서는 이브닝 룩 연출을 도와주는 보석 악세사리를 소개하였고 97년 8월호 화보4에서는 앤티크한 악세사리(비녀, 뒷꽂이, 백, 호박, 은, 옥소재 목걸이와 팔지, 매듭, 구두)를 슬림하고 심플한 의상에 코디하여 오리엔탈 룩을 연출하였다. 98년 5월호 화보1에서는 로맨틱, 모던, 스포티 3가지 테마로 그에 해당하는 악세사리를 소개하였고, 98년 12월호에서는 파티연출을 도와주는 엘레강스한 악세사리로 더욱 우아하게 연출하였다.



<사진55> 트랜드 소품코디네이션, 2000.6. 화보1



<사진56> 액센트 소품코디네이션, 1997.5. 화보1



<사진57> 액센트소품 코디네이션, 1998.5. 화보4



<사진58>액센트 소품 코디네이션, 1998.6. 화보5



<사진59> 액센트 소품코디네이션, 1999.12. 화보1



<사진60> 액센트 소품코디네이션, 1999.12. 화보1

99년 2월호 화보4에서는 이지웨어에 에스닉풍 악세사리를 매치 하여 엑조틱 룩을 연출하였고 3월호 화보7에서는 정장수트에 스포티한 소품을 매치 하여 세미 캐주얼룩으로 연출하였다<사진61>. 2000년 3월호 화보6에서는 다이아몬드 목걸이, 비즈벨트, 모자 등의 소품을 시폰 원피스, 산통실크소재 러플 블라우스, 시퀸장식 등의 의상과 코디하여 로맨틱 이미지를 더욱 강조하였다. 2000년 8월호 화보1에서는 블랙의 페미닌한 의상에 챙넓은 모자, 우아하고 대담한 목걸이, 베일 머리장식, 모피칼라 등을 코디하여 클래식한 스타일로 연출하였고 2000년 9월호 화보1에서는 홀터넥 드레스와 탑, 깊게파인 V넥 블라우스 등에 큼직한 보석 목걸이, 팔찌, 하이힐을 코디하여 섹시한 글래머러스 룩을 연출하였다<사진62, 63>.

(5) 소재를 주제로 한 화보

소재를 주제로 한 화보는 그다지 많게 기획되지는 않았다. 계절별로 뚜렷한 특징을 나타나는데 봄에는 리넨, 면 등 내추럴한 이미지의 천연소재와 레이스와 같은 여성스런 소재, 여름엔 메탈릭 컬러의 광택소재, 펄사가 가미된 루렉스 소재, 가볍고 얇은 시폰이나 니트 등의 시스루 소재가 주제로 기획되었으며 가을, 겨울엔 니트, 캐시미어, 가죽, 울, 트위드, 패딩, 모피가 채택되어 연출되었다. 그 밖에 진 소재는 봄, 여름철에 기획되었다.

소재를 주제로 한 화보의 코디네이션은 소재 자체가 갖는 이미지에 의한 코디네이션과, 이질적인 소재끼리의 의외성을 노린 믹스앤매치 코디네이션, 유행소재에 의한 코디네이션으로 기획 연출되었다. 그러나 이질적인 소재의 매치라 해도 색채나 이미지가 비슷한 아이템 등 공통되는 요소가 있어 전체적으로 통일감을 느낄 수 있었다. 그리고 시즌별 유행소재를 소개한 화보는 특별한 룩이나 연출기교 없이 소재위주로 클로즈업되어 촬영되거나 같은 소재나 비슷한 질감의 소재로 통일감 있게 코디네이션하였다.

① 소재의 이미지와 코디네이션

소재 자체가 갖는 이미지를 살려 연출된 코디네이션은 97년 7월 스포티하고 튼튼한 이미지의 진 소재 아이템으로 활동적인 하이킹 룩을 연출하였고 99년 5월호 화보2에서는 가벼운 소재, 레이스나 시스루 소재의 아이템으로 여성스런 실루엣이 돋보이는 페미닌 룩을 연출하였다. 99년 5월호 화보6에서는 얇고 정교한 니트를 시스루되게 겹쳐 입거나 하나만 입어 슬림하고 여성스럽게 연출하였다<사진64>. 98년 9월호 화보1에서는 캐시미어소재로 소프트한 이미지의 시티룩을 연출하였으며 98년 10월호 화보1, 99년 1월호 화보3에서는 가죽소재 아이템으로 도회적 느낌의 모던룩을 연출하였다 <사진65, 66>. 98년 12월호 화보 5에서는 패딩소재 아이템으로 스포티 룩을 연출하였으며<사진67> 99년 12월호 화보2에서는 모피소재 의상을 화려한 악세사리와 함께 코디하여 럭셔리한 이미지를 연출하였다.

② 이질적 질감의 소재 코디네이션

98년 1월호 화보5에서는 투박하고 도톰한 부피감의 니트 스웨터와 하늘거리는 모슬린 소재 스커트로 상반된 재질감의 매치를 시도하였다. 그러나 색상은 다크 퍼플로 통일하였다<사진68>.

2000년 5월호 화보1에서는 시퀸 장식된 스커트와 니트 스웨터의 광택과 무광택이 대조되는 코디네이션을 선보였다. 그러나 역시 실루엣은 둘 다 여성스럽다는 공통분모를 가진다<사진69>. 2000년 5월 화보3에서는 특특한 데님소재를 부드러운 시폰소재와 매치 하였다. 그러나 아이템의 디자인에 있어서는 여성적인 스타일이라는 공통점이 있다<사진70>.

③ 유행소재에 의한 코디네이션

97년 6월호 화보4, 7월호 화보5에서는 광택소재를 유행소재로 다루었는

데 광택소재로 상, 하의 전체가 코디되거나 광택소재와 대립하지 않는 단색의 무광택 소재와 매치하여 광택소재를 돋보이게 코디네이션 하였다. 이때 신발, 목걸이, 팔찌, 백 등의 악세사리 역시 메탈소재로 코디하여 통일감 있게 연출하였다<사진71, 72>. 99년 10월호 스팽글, 비즈, 새くん 등이 부분적으로 장식된 반짝이 의상을 평범하고 심플한 의상과 코디하여 일상복으로 입을 수 있는 코디네이션을 선보였다.

(6) 문양을 주제로 한 화보

문양을 주제로 한 화보는 매우 극소수로 기획되었다. 시즌별로 뚜렷한 트렌드가 나타나는 룩이나, 아이템, 색채, 소품에 비해 문양의 트렌드는 비교적 덜 민감하기 때문에 화보의 주제로 많이 채택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진다. 98년 6월호 화보3은 자연주의 디자이너 젠조 단독화보로 브랜드에서 즐겨 사용하는 꽃무늬 패턴의 의상들을 소개하였다. 99년 12월호 화보5에서는 전통적인 체크문양을 주제로 평크적으로 와일드하게 연출하였다<사진73>.

이때 평크적인 요소는 메이크업에 한정되었을 뿐 의상은 일반적인 스타일로 체크문양 아이템과 솔리드 아이템, 체크문양끼리의 매치 등으로 코디네이션되었다. 2000년 7월호 화보5에서는 로맨틱모드와 플라워모티프가 공동 주제로 문양의 이미지에 따라 스타일 연출이 시도된 경우이다<사진74>. 2000년 9월호 화보7과 10월호 화보3은 각각 블랙&화이트의 체크와 헤링본 패턴, 다양한 체크패턴을 주제로 기획되었다. 이때 체크문양 아이템과 솔리드 아이템의 매치에서 체크문양에 들어간 색상 중 하나를 선택하여 컬러 코디네이션 되었다<사진75>.



<사진61> 이미지 소품 코디네이션, 1999.3. 화보7



<사진62> 이미지 소품코디네이션, 2000.8. 화보1



<사진63> 이미지 소품코디네이션, 2000.9. 화보1



<사진64>소재이미지에 의한코디네이션, 1999.5화보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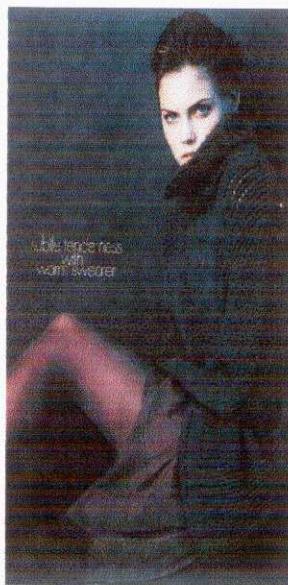
<사진65>소재이미지에 의한코디네이션, 1998.9화보1



<사진66>소재이미지에 의한코디네이션, 1998.10.화보1



<사진67>소재이미지에의
한코디네이션, 1998.12.화보5



<사진68>이질적 소재 코
디네이션, 1998.1.화보5



<사진69>이질적 소재 코
디네이션, 2000.5. 화보1



<사진70>이질적 소재 코
디네이션, 2000.5. 화보3



<사진71>유행소재에의한
코디네이션, 1997.6.화보4



<사진72>유행소재에의한
코디네이션, 1997.7.화보5

(7) 모델을 주제로 한 화보

화보마다 한 명 내지 많게는 대여섯명의 모델이 화보의 주제에 따라 복장을 차장하고 스타일을 연출한다. 보통 화보의 테마가 결정되고 그에 어울리는 모델을 섭외 하게 되는데 특별히 모델이 주제로 기획된 화보는 역으로 모델의 이미지에 맞게 패션 스타일을 결정하기도 한다.

97년 4월호는 특별히 화보 전체가 모델이 공동주제로 기획되어 텁 디자이너와 텁모델의 만남이란 주제로 각기 화보를 진행하였다. 모델이 선천적으로 풍기는 고유 이미지와 통일되게 디자이너(브랜드)의 의상을 선정하여 연출하였다. 중성적인 느낌의 변정수와 갸냘프고 여성스런 이미지의 임상효를 그들 고유의 매력을 더욱 부각시켜 변정수는 보이시하게, 임상효는 로맨틱하게 연출하였다. 강한 느낌의 감각적인 화보를 많이 찍는 정재경은 마틴싯봉, 헬무트랑의 의상으로 절제된 아방가르드 룩을 연출하였다. 화려한 이미지의 이승연은 앙드레 김의 이브닝 드레스로 로맨틱 룩을 연출하였고 그밖에 니키 테일러는 앤클라인 컬렉션으로 심플하고 캐주얼한 스타일을 연출하였다. 97년 6월호 화보1에서는 '톱모델 신디 크로포트의 섹시 비키니룩'이란 테마로 진행되었는데 모델의 관능적이고 탄력있는 몸매는 섹시한 이미지를 배가시킨다<사진76>. 98년 1월호 화보6 역시 '김혜수가 연출하는 액티브 섹시 무드'란 테마로 신축성이 뛰어난 라이크라 소재의 심플하면서도 몸에 꾀드는 포멀정장 또는 이브닝 웨어로, 아이템 자체도 섹시한 이미지가 있긴 하지만 김혜수라는 모델에 의해 섹시한 이미지가 더욱 강조된 예이다.

2000년 1월호 화보4에서는 캐리의 여주인공 이미지와 흡사한 오드리 마니를 영화속 주인공으로 변신시켰다<사진77>. 98년 8월호 화보4, 10월호 화보2, 12월호 화보6, 99년 12월호 화보4, 2000년 8월호 화보5는 특별히 패션 모델이 아닌 연예인(장만옥, 고소영, 밀라 요요비치, 페넬로페 크루즈)과 디자이너(장 폴 고티에)를 선정하여 모델이 부각된 경우이다<사진78>.

2000년 6월호 화보4와 7월호 화보3은 슈퍼모델 지젤과 오너 프레이저에 초점을 맞추어 리조트 룩과 폐미닌 룩을 연출하였다.

(8) 디자이너(브랜드)를 주제로 한 화보

디자이너(브랜드)가 주제로 기획된 화보는 각 디자이너(브랜드)의 개성과 작품세계가 뚜렷이 드러나고 브랜드 고유의 이미지 위주로 연출된 경우가 많다. 단독 브랜드로 진행된 화보와 디자이너(브랜드)가 조인된 화보로 나뉘는데 시기적으로 보통 1, 2, 3월호와 8, 9, 10월호에 주로 기획되었다. 이는 S/S, F/W 각종 컬렉션에 선보인 의상을 디자이너별로 소개하거나 브랜드의 신상품 위주로 소개하였기 때문이다<사진79, 80, 81, 82, 83, 84, 85>.

단독 브랜드가 화보의 주제로 부각된 경우는 다른 화보와 달리 브랜드 측이 화보 진행 시 부여되는 총 진행 경비+ α 의 금액으로 페이지를 사서 진행한다. 따라서 다른 주제의 화보보다는 홍보성이 강하기 때문에 어떠한 스타일을 연출하는 코디네이션의 관점보다는 신상품 소개 의도가 강하다. 브랜드의 고유 이미지에 맞는 아이템을 선정하거나 시즌별 컨셉에 맞추어 트렌드 아이템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디자이너(브랜드)가 조인된 화보는 시즌별 컬렉션 의상들을 디자이너별로 소개하거나, 각 나라마다 톱 디자이너들을 선별하여 각 페이지마다 그 디자이너의 작품을 소개하였다. 보통 오뛰꾸뛰르 의상들로 실용적인 면보다는 작품성이 강한 스타일이 주류를 이룬다.

한 화보 내에서 명품브랜드는 명품브랜드끼리 조인되며 명품브랜드와 국내 디자이너 브랜드와 조인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명품브랜드랑 국내 내셔널 브랜드와는 조인하지 않는 것이 불문율이다. 이것은 브랜드의 이미지를 고려한 명품브랜드의 홍보전략이 잡지사에 작용하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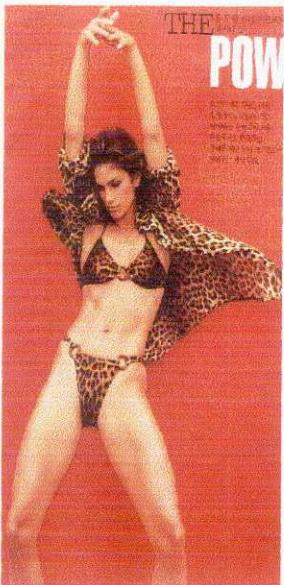
<사진73> 체크패턴 코디
네이션, 1999.12. 화보5



<사진74> 플라워문양 로
맨티룩, 2000.7. 화보5



<사진75>헤링본체크 코
디네이션, 2000.9. 화보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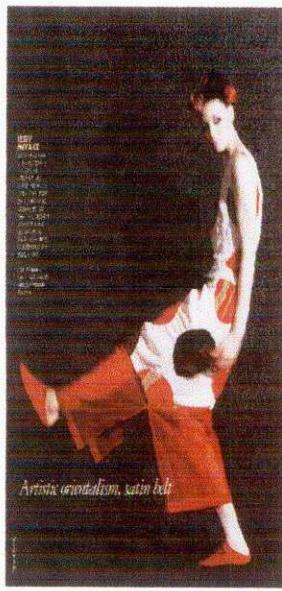
<사진76>신디 크로포드
의 비키니룩, 1997.6.화보1



<사진77>오드리마니의
캐리룩, 2000.1. 화보4



<사진78>장 폴 고티에의
그루헨룩, 1998.12. 화보6



<사진79> 이세이 미야끼의 플리츠, 1997.3. 화보3



<사진80> 앙드레 김의 금박자수, 1997.12. 화보1



<사진81> 샤넬의 트위드 수트, 1999.8. 화보2



<사진82> 크.디올의 글렌체크, 1999.8. 화보2



<사진83> 설윤형의 오리 엔탈록, 1999.8. 화보4



<사진84> 루비나의 아방 가르드록, 2000.2. 화보2

V. 종합적 분석 결과

패션화보를 연출함에 있어 룩, 아이템, 색채, 소품, 소재, 문양, 모델, 디자이너(브랜드)의 여덟까지 테마에 따라 이루어졌다. 이 중 아이템, 색채, 소품, 소재, 문양, 모델은 화보라는 대상에 국한되지 않고 폭넓게 일반인들에게 적용되는 대중적인 연출요소이고 룩은 연출요소가 종합된 결과이며 디자이너(브랜드)는 화보에만 국한되는 기획요소로 분류할 수 있다.

패션화보를 주제별로 분류하여 코디네이션을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이 코디네이션의 특징을 도출해 내있다.

1. 트렌드를 반영한 코디네이션

화보별 주제를 분석해보면 화보를 통해 당시의 트렌드를 파악할 수 있다. 트렌드를 주제로 기획되었음은 물론이거니와 제시된 코디네이션의 연출 테크닉 또한 트렌드를 이끌어 간다. 매월 화보를 기획함에 있어 외국화보가 1/2정도 구성되는데 특히, 디자이너(브랜드)가 주제일 경우 패션선진국의 주요 컬렉션의 디자이너(브랜드)별 다양한 트렌드를 접할 수 있으며 아이템, 소재, 색채, 소품, 룩 역시 트렌드에 의해 기획되고 캡션을 통해 사진으로 연출된 상황 말고도 코디네이션 기법에 대한 정보를 제시하기도 하였다.

코디네이션의 요소별로 트렌드를 다룬 화보와 디자이너(브랜드)가 주제인 화보 중 트렌드를 다룬 화보를 종합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규명해 내었다<표12>.

국내화보는 외국화보의 주제에 따라 비슷한 의도로 기획하기도 하였으며 국내에 들어온 명품브랜드와 내셔널 브랜드의 보도자료가 화보기획에 영향을 미치므로 패션 선진국과 국내 트렌드가 종합된 결과라 보아도 무방하다.

독자들은 이러한 화보를 통해 유행경향을 파악하고 직, 간접적으로 코디네이션을 교육받는다. 잡지의 회독률이 높기 때문에 그에 따른 영향력은 대단하다.

2.. 믹스 앤 매치 코디네이션

패션 전문 잡지의 화보에 나온 코디네이션은 일반인들이 평상시 연출하기에는 과격적인 믹스 앤 매치(mix & match)와 창의적이고 멀티플(multiple)한 코디네이션이 시도되었다. 이것은 패션지 외의 일반 여성잡지의 화보와 비교해 보면 쉽게 그 차이를 알 수 있다. 일반 여성지의 패션화보보다 패션스타일이 진보적이고 혁신적임이 확연히 드러난다.

그러한 이유는 첫째, 기성복이라 할 지라도 외국명품 브랜드와 디자이너 브랜드위주로 진행되어 독창적이고 디자인성이 강한 제품이나 실험적이고 아방가르드한 제품들이 선택되었고 각종 컬렉션의 오토 쿠튀르 작품 또한 다루어졌기 때문이다.

둘째, 연출 테크닉 면에 있어서도 상반되는 이미지의 연출요소에 의한 믹스 앤 매치 예를 들어, 여성·남성적, 동·서양, 엘레강스·스포티, 이질적인 소재의 믹스 앤 매치, 계절을 대표하는 아이템끼리의 믹스 앤 매치 등과 같은 크로스 오버(crossover) 코디네이션이 시도되었다.

또한, 이너웨어 없이 상의 류 만의 과감한 연출을 한다든지, 양말과 하이힐의 매치, 재킷+재킷, 팬츠+스커트, 브래지어와 브래지어의 레이어드 등 과감하고 노멀하지 않는 스타일이 즐겨 연출되었다.

믹스 앤 매치 코디네이션은 시대에 따라 가변성을 띠는 만큼 유행을 리드하고 선도하는 패션전문잡지의 기능 상 화보에서 보여주는 믹스 앤 매치 코디네이션은 그것이 대중들에게 수용되었을 경우 더 이상의 믹스 앤 매치 코디네이션이 아닌 노멀한 코디네이션으로 변화될 수도 있다.

3. T.P.O에 의한 코디네이션

화보가 갖는 기능적인 측면에서 바라봤을 때 T.P.O에 따라 코디네이션이 이루어졌다. 우선 계절은 화보의 주제에 영향을 미친다. 룩, 아이템, 소재, 소품이 계절의 직접적인 영향하에 있으며 위킹우먼을 위한 소피스트케이티드 스타일이나, 워크엔드 룩, 이브닝 웨어로 연출한 파티룩 등은 시간(Time)의 협의의 측면으로 이해할 수 있다.

장소(Place)는 장소가 연출에 관건이 되는 룩은 물론이거니와 이미지에 따른 룩일 때에도 주제의 이미지에 걸 맞는 최적의 장소를 배경으로 촬영되어 스타일의 완성도를 높였다. 같은 히피룩이라도 전원에서 연출된 보헤미안 스타일과 도심에서 연출한 히피룩은 분위기가 틀릴 수밖에 없는 것이다.

같은 이름의 룩이라도 의도적으로 컨셉을 달리하여 변화를 주었다.

목적(Object)에 의한 코디네이션 또한 주로 도시의 위킹우먼을 위한 룩 제안이나, 피크닉, 트레블링룩, 파티룩 등 라이프 스타일(life style)에 따른 패션을 연출할 때 고려되었다. 그리고 화보전체를 바라봤을 때 남들과 차별화 되거나 돋보이도록 코디네이션한다는 차원으로 궁극적인 화보연출 목적을 설명할 수 있다. 이렇듯 T.P.O는 모델의 여건에 따른 패션 코디네이션의 변화요인으로 작용됨을 알 수 있다.

4. 헤어와 메이크업을 활용한 토탈 코디네이션

화보의 주제로 따로 분류되지는 않았지만 화보 안에서 살펴보는 헤어 메이크업은 의상과 조화롭게 연출되었음은 물론이거니와 이미지 연출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로 작용되었다.

헤어와 메이크업은 전반적으로 화보의 테마와 통일되게 연출되었고 때론 상반된 이미지로 연출하기도 하였다. 복식보다도 헤어, 메이크업이 전체 스타일을 리드하는 경우도 있었다.

특히, 엘레강스 룩과 매니시룩, 아방가르드룩에서의 헤어스타일은 의도한 이미지 연출에 크게 기여를 하였으며, 그 중에서도 아방가르드 룩을 연출할 때 전위적인 메이크업은 코디네이션에 힘을 실어주었다. 평크나 각 시대별 레트로룩처럼 특징적인 패턴이 있는 경우 복식과 통일되게 이미지를 강조하였고 반면 복식은 표출되는 이미지가 약하더라도 연출된 헤어와 메이크업만으로 특정 이미지를 표현하기도 하였다<사진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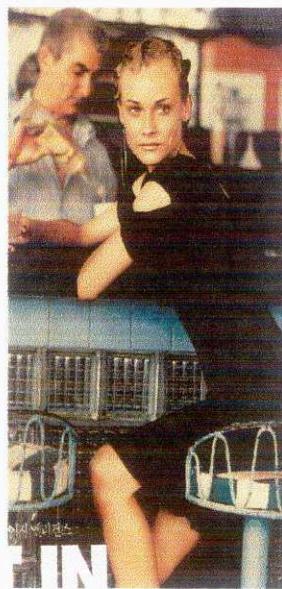
매달 잡지 안에는 헤어, 메이크업의 트렌드를 다룬 뷰티기사가 따로 기획되나 얼굴 클로즈업이나 상반신 위주의 컷으로 독자적인 면만 강조된 기사이며 복식과의 조화는 등한시된다. 그러므로 패션화보에서의 헤어와 메이크업 연출은 전체 스타일의 조화를 고려한 진정한 토탈 코디네이션을 엿볼 수 있다.



<사진85> 구찌의 아나콘
다 패턴, 2000.2. 화보2



<사진86> 꽃장식헤어,
로맨틱룩, 1997.2. 화보4



<사진87> 웨이브 헤어,
엘레강스룩, 1998.6. 화보6



<사진88> 레트로 엘레강
스, 2000.2. 화보3



<사진89> 에스닉,
2000.4. 화보1



<사진90> 아방가르드,
1997.9. 화보1



<사진91> 평크,
1997.11. 화보6



<사진92> 평크,
1999.12. 화보5



<사진93> 레트로 무비스
타, 2000.9. 화보3



<사진94> 아방가르드&첸,
2000.1. 화보3



<사진95> 아방가르드,
2000.8. 화보3



<사진96> 레트로 팝록
2000.11. 화보5

5. 모델의 이미지를 강조한 코디네이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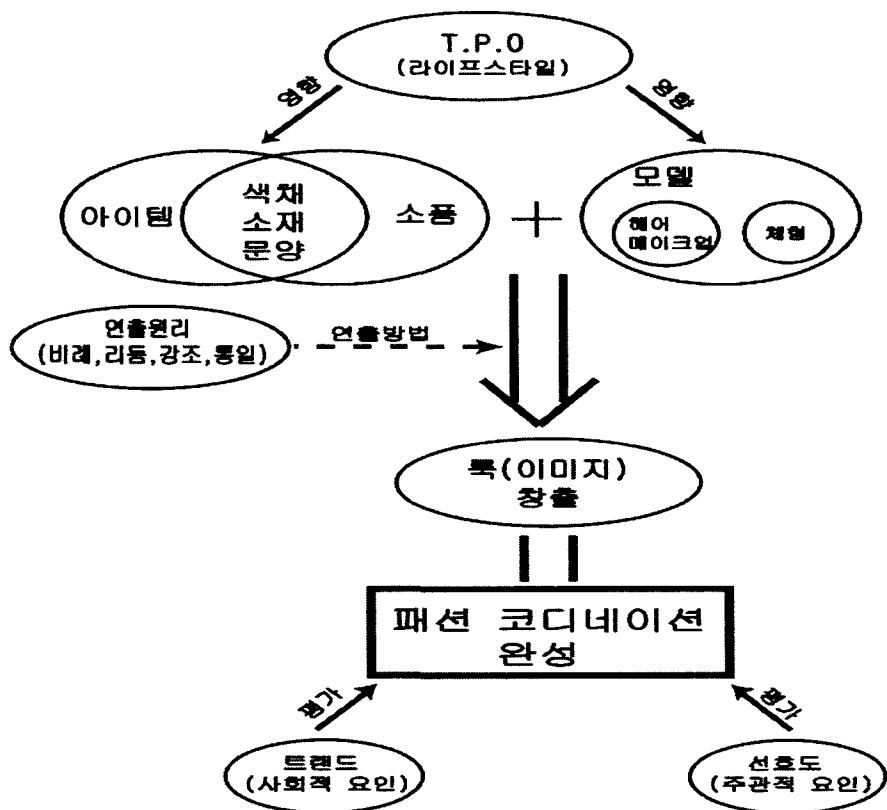
전체 화보는 주제에 따른 이미지를 최상으로 연출할 수 있는 모델을 선택하여 촬영되었다. 특별히 모델이 주제로 부각된 화보는 물론, 전체 화보가 모델의 이미지를 고려하여 진행되었다. 선천적인 이미지 말고도 포즈(pose)에 의해서도 의도한 륙을 연출하였다. 단, 화보에서는 신체적인 체형은 거의 고려되지 않았다. 화보의 패션스타일을 전달하는 모델은 대부분의 여성들이 이상적으로 추구하는 완벽한 체형에 근접하기 때문에 그 만큼 연출의 폭이 넓을 수밖에 없다. 이것은 화보분석에서 도출해낸 결과 중 하나인 믹스 앤 매치 코디네이션이 모델의 완벽한 신체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연출의 제약을 덜 받는다는 의미로도 해석이 가능하다.

그러므로 화보에서의 패션 스타일은 모델의 이미지에 초점이 맞추어 연출되었다. 독자들은 화보를 통해 자신의 이미지에 맞는 패션연출을 습득할 수 있다. 아울러 일반인들은 코디네이션시 체형이 큰 변수로 작용됨을 감안하여 화보의 스타일링을 선택적으로 수용하여야 할 것이다.

6. 패션 코디네이션의 총체적 관계

위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패션 코디네이션은 사회적 요인에 유행, 개인적 요인으로 체형, 헤어&메이크업, 선호도, 그리고 T.P.O에 따른 라이프 스타일에 의해 코디네이션의 평가가 이루어짐을 밝힐 수 있다.

위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패션 코디네이션의 총체적 관계를 도식화로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표13> 패션 코디네이션의 총체적 관계

VII. 작품연출

1. 기획의도

자유분방한 이미지의 보헤미안 스타일로 대표되는 히피룩(hippie look), '자연으로 돌아가자'라는 모토아래 60년대를 풍미했던 히피족들의 패션 스타일이 끊임없이 새롭게 재현되어 패션의 한 장르를 형성하고 있다.

2002년 S/S부터 트렌드 흐름을 이끌었던 히피룩, S/S시즌의 히피룩이 로맨틱에 기반을 두었다면 2002년 F/W 트렌드³⁶⁾로 부상한 히피룩은 이국적 요소가 강화된 에스닉 히피스타일로 정의 내릴 수 있다.

패션 트렌드를 반영하여 히피적 요소가 부분적으로 사용된 의상과 소품으로 도시적인 시크함을 잊지 않는 현대적 감각의 네오 히피룩을 연출한다.

2. 연출요소

자연 그대로의 자유로운 이미지와 현대적 도시여성의 세련미를 믹스하여 코디네이션 한다.

아이템에 있어서 태슬장식, 원주민 풍의 구슬과 깃털장식, 패치워크 디테일, 벨보텀라인 팬츠, 트윈니트, 니트솔 등으로 에스닉한 이미지와 복고적인 실루엣을 선택하고 편안하면서도 슬림한 실루엣으로 모던한 감각을 믹스한다.

소품은 꽃 모양 벨트, 가죽메시 벨트, 숄더장식 가방, 스카프, 나무 귀걸이, 가죽 목걸이를 이용하여 동일한 이미지로 히피적 요소를 강조한다.

36) www.dongahtv.com, 2002 F/W 1회 전체경향 분석

색채는 베이지, 브라운의 내추럴 컬러를 주조색으로 하여 자연스런 멋을 살린다.

소재 역시 울(니트), 코튼(코듀로이), 스웨이드 등의 천연소재를 선택한다. 선택된 울 소재 니트는 손뜨개 느낌으로 직조되어 친근하고 정겨운 이미지를 느낄 수 있다.

문양은 히피패션을 대표하는 플로랄 패턴을 선택한다. 꽃은 히피들의 평화와 반전정신의 상징으로 애용되었던 대표적 패턴이다.

메이크업은 전체적으로 인위적 느낌은 배제하고 자연스러운 내추럴 메이크업으로 연출한다. 투명하게 피부 톤을 표현하고 자연그대로의 입술 색을 살리도록 투명 립글로스를 바르고 눈썹라인 역시 자연 그대로 살려준다.

헤어는 전통적인 긴 생 머리를 지양하고 모던한 이미지를 추가하기 위해 짧은 머리에 볼륨감을 주어 헝클어진 느낌으로 자유분방한 이미지를 가미한다.

3. 작품설명

1) 작품 I

브이네크라인을 따라 꽃무늬 자수가 처리되어 에스닉한 느낌을 선사하는 블라우스와 무릎에서 밑단으로 갈수록 살짝 퍼지는 벨보텀 팬츠를 매치한다. 술장식으로 트리밍된 실크 스카프를 머리에 두르고 에스닉한 나무귀걸이와 가죽끈 목걸이를 매치하여 히피이미지를 강조한다.

2) 작품 II

깃털과 구슬로 마무리된 가죽끈으로 블라우스의 가슴아래, 팬츠의 옆선을 장식한 디테일이 히피적 요소를 강조한 스타일. 짙은 밤색 꽃 모양 가죽끈 벨트를 목걸이로 연출하여 완성도를 높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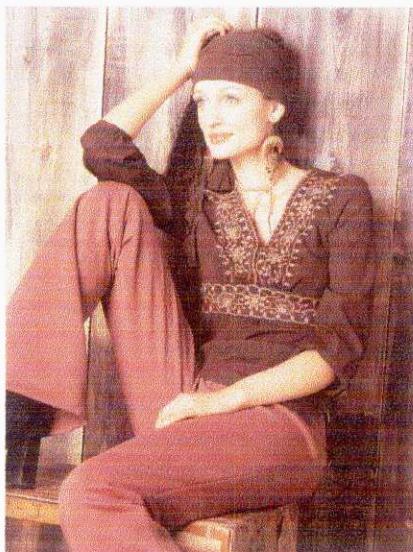
3) 작품 III

스웨이드와 모직물이 패치워크된 스커트는 밑단이 태슬 트리밍되어 히피적인 이미지 연출에 적합한 아이템. 상의는 단색의 터틀넥 스웨터를 입고 톤 다운된 핑크색 솔을 둘러 포인트를 준다. 메시가죽벨트와 헤어밴드 역시 히피적 이미지를 강조하는 요소로 작용한다.

4) 작품 IV

불규칙적인 햄라인의 잔잔한 꽃무늬 스커트와 도톰한 부피감이 느껴지는 겨자색 트원니트를 매치한다. 밤색 니트솔과 술장식된 가방, 판타롱 스타킹이 반복되어 리듬감을 느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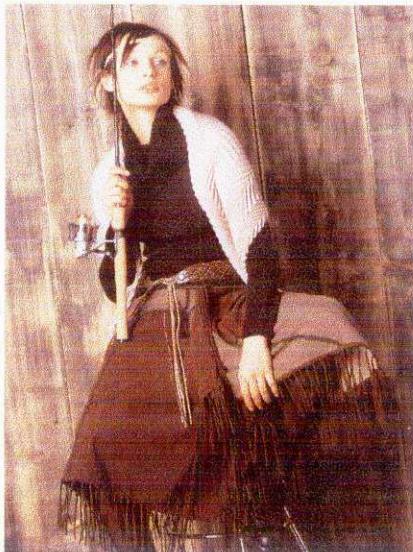
4. 작품사진³⁷⁾



<사진91> 작품 I



<사진92> 작품 II



<사진93> 작품 III



<사진94> 작품 IV

37) 「현대백화점 사외보」, 2002. 10. pp.6.7. pp.10.11.

주제: 가을 유행예감-네오 히피룩, 코디네이터: 박성숙.

VII. 결 론

20세기 후반에 들어와 패션산업은 기성복의 발달과 개성추구에 높은 가치를 두면서 패션 코디네이션이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다.

패션 코디네이션의 연출사례를 잘 보여주는 패션잡지의 화보 분석을 통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패션 화보의 코디네이션은 룩, 아이템, 색채, 소품, 소재, 문양, 디자이너(브랜드), 모델의 8가지 주제에 따라 기획되었다. 이러한 주제는 단독적이기보다 두, 세 가지의 주제가 결합되어 다루어졌다. 이 중 룩에 따른 연출이 가장 많았으며 아이템, 색채, 소품, 소재의 순으로 나타났다. 룩과 공동주제로 연출된 경우가 많았고 이 외의 주제 또한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룩이나 이미지로 표현될 수 있다.

이론적 배경에서 고찰한 바와 같이 코디네이션의 연출요소가 종합되어 룩을 연출한다는 맥락과 일치하며 룩이 가장 포괄적인 개념으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고 패션 코디네이션의 완성으로 볼 수 있다.

화보의 주제에 따른 패션 코디네이션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각각의 주제들은 대개 트렌드에 근거하여 코디네이션이 이루어졌다. 한 시즌을 앞서 트렌드를 제시하는 패션관련단체의 자료에 비해 잡지화 보는 트렌드 제시는 물론 수용과정까지도 반영되는 종합된 표본으로 규정지을 수 있다. 이를 통해 「ELLE」 잡지에 나타난 연도별 트렌드를 파악할 수 있었다. 연도별로 화보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연도가 오래될수록 조금은 촌스럽다는 연구자 개인의 감정을 갖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이는 개인적인 미적 취향이 작용하기도 하겠지만 현재의 유행경향이 은연중에 영향을 미쳐 평가에 가치기준으로 작용되었기 때문이라고 본다.

둘째, 트렌드 경향이 투영된 화보의 연출전개방식은 패션을 리드해 나간

다는 전문가적인 견해에서 시도되어 새롭고 신선하며 때론 파격적인 믹스 앤 매치 코디네이션으로 연출되었다.

셋째, 각각 화보의 주제는 철저히 T.P.O를 배경으로 기획되고 연출되었다. 월간지의 특성상 계절이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장소에 따라 룩의 컨셉이 달라지며 목적에 의한 룩이 제안되기도 하였다. 이렇듯 T.P.O는 라이프 스타일에 따른 패션 코디네이션의 변화요인으로 작용됨을 알 수 있다.

네째, 화보의 테마로 가시화 되지는 않았지만 코디네이션 연출에 있어 헤어와 메이크업의 비중이 매우 높은 연출요소로 작용되었다.

다섯째, 화보에서 코디네이션을 전달하는 모델은 신체적 체형보다는 이미지에 의거하여 연출되었다.

전문적이고 신뢰할 만한 패션잡지화보의 분석결과를 토대로 일반적인 패션 코디네이션에 확대 대입하여 패션 코디네이션의 총체적 관계를 밝힐 수 있었다.

패션 트렌드는 코디네이션의 요소와 연출전개방법 전반에 걸쳐 영향을 미치며 객관적인 평가기준으로 작용하고, 패션을 연출할 때 모델의 이미지가 고려되어야하며 신체적 체형은 개별적 변화요인으로 작용되고 T.P.O에 따른 라이프 스타일을 배경으로 한다.

따라서 패션 코디네이션은 사회적 요인에 유행, 개인적 요인으로 체형, 헤어&메이크업, 선호도, 그리고 T.P.O에 따른 라이프 스타일에 의해 최종적으로 코디네이션의 평가가 이루어짐을 밝힐 수 있다.

사람이면 누구나 옷을 입고 소품을 착용하며, 여성일 경우 화장을 하고 헤어스타일을 가꾼다. 그러나 단순히 '옷을 입는다'는 차원에서 벗어나 의도에 따라 연출하여 입는다는 개념이 진정한 의미의 패션 코디네이션이며 일반인들은 화보를 통해 정보를 받아들이고 개성창출을 위해 선택적으로 수용하면 된다.

앞으로, 상대적으로 연구가 미진한 소품과 헤어&메이크업 측면, 모델의 변화요인으로 작용하는 체형별 코디네이션, 연출 방법론적인 측면으로 다각도로 접근할 수 있겠다. 그러므로, 본 연구가 향후 코디네이션 연구에 미흡하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활발한 후속연구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참 고 문 헌

1. 저 서

- 김은경, 김옥경, 한자영, 「현대생활속의 패션」, 서울:학문사, 2000.
- 김영신, 「토탈 패션 코디네이션」, 서울:형설출판사, 2001.
- 김지영, 「패션디자인의 이론과 실제」, 서울:사회교육연구회, 1994.
- 라사라교육개발원, 「패션 스타일리스트」, 서울:(주)라사라패션정보, 2001.
- 류지원, 장미화, 이성옥, 「뷰티 코디네이션」, 서울:고문사, 2000.
- Marilyn Revell Delong(저), 금기숙(역), 「복식조형을 보는 시각」, 서울:도서 출판 이즘, 1997.
- 신상옥, 오경화, 이선희, 나영주, 「현대패션과 의생활」, 서울:교문사, 1999.
- 안명숙, 장애란, 이봉덕, 이선경, 양숙향, 「현대인의 패션」, 서울: 예학사, 1999.
- 양리나, 최나영, 「패션연출」, 서울:대왕사, 2000.
- 이경순, 김희섭, 「의생활과 패션코디네이션」, 서울:교문사, 1998.
- 이인자, 신효정, 「패션마케팅 & 코디네이션」, 서울:시공사, 2000.
- 이호정, 「패션스페셜리스트」, 서울:교학연구사, 1997.
- 오희선, 박화순, 「아름다운 여성을 위한 패션 코디」, 서울:경춘사, 2000.
- 오희선, 박화순, 「패션을 위한 디자인」, 서울:경춘사, 2001.
- 유현주, 임영주, 황영미, 「토털 뷰티 코디네이션」, 서울:일진사, 2001.
- 유효순, 이정주, 최원경, 김혜수, 「패션의 이해」, 서울:신팽출판사, 2001.
- 유태순, 조기여, 박휘숙, 조은영, 「패션코디네이션의 이해」, 서울:학지사, 1999.
- 장애인, 안명숙, 박우미, 「패션 코디네이션」, 서울:예학사, 2000.

전선정, 최혜정, 이귀영, 양선미, 문윤경, 「토탈 코디네이션」, 서울:청구문화사, 1999.

정삼호, 이은진, 문선정, 「패션 self 스타일링」, 서울:교문사, 2000.

2. 논 문

김순영, “국내 라이선스 패션잡지의 지면구성에 관한 연구”, 서울:한성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2000.

도은주, “잡지광고에 있어서 색채이미지가 소비자의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 연구”, 서울: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2001.

박정훈, “코디네이션의 연출에 관한 연구”, 서울: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1990.

신민영, “개인체형에 따른 3D 패션 코디 시스템”, 서울:명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2001.

이동은, “대중음악 분석을 통한 스타패션의 특징 연구”, 서울: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2001.

이송림, “샤넬이미지를 통한 패션 코디네이션 연구”, 서울:동덕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2000.

이응도, “색채이미지와 코디네이션에 관한 연구”, 대구:대구효성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1996.

이용희, “패션산업에 있어서 Fashion Coordinator의 역할 연구”, 청주:청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1984.

이윤주, “복식에 있어서의 색채 이미지에 관한 연구”, 서울: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1992.

이지숙, “한국 Fashion산업의 발달과 Fashion Coordinator역할에 관한 연

- 구”, 서울: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1992.
- 오인숙, “모델 속성이 광고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 청주:충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1997.
- 임경순, “현대 패션코오디네이션 연구”, 서울: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1999.
- 홍성택, “잡지의 스타일링(Styling)에 관한 연구”, 서울: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1987.

3. 인터넷

www.nso.go.kr

www.dongahtv.com

ABSTRACT

A Study of Fashion Coordination —Focusing on photographs in fashion magazines—

Park, Sung-Sook

Detailed Major in Fashion Design

Major in Industrial Design

Graduate School of Industrial Art

Hongik University

Advised by Prof.: Geum, Key-Sook, Ph.D.

A new field spotlighted in modern fashion industries is fashion coordination. It's because of various and detailed brands due to the developments of ready-made clothes, and the activation of casual wares as well as formal dresses. Cross coordinate products also became popular due to changed clothing inclinations. Various trends appeared according to the positions of each image, and fashion trends or cycles became shorter and diversified. Consumers in the modern fashion market pursue self-expressions and self-satisfactions, emphasizing their own personalities. People want to be differentiated from others even when wearing ready-made clothes. Therefore, the relative importance of accessories, hair styles and make-up has been increased, and the importance of total coordination has been emphasized, needing professional coordinate techniques.

Furthermore, coordinators have widely become known as a new job because professionals who can direct appearances intensively and professionally in modern fashion industries are more needed than the past, escaping from just 'wearing' clothes.

Fashion coordination can be a practical study that can help people create their personalities, rather than just a professional field.

Therefore, in this research, fashion coordination was approached from

an academic viewpoint, and the theory of fashion coordination was examined by synthesizing previous researches and my practical experiences as a fashion coordinator. Based on an established theory, fashion coordination was analyzed by setting fashion magazines as a research target.

The directing factors of coordination were classified into item, accessory, color, fabric, pattern, hair & make-up, and model, and then the features of each factor and directing methods were considered. It was regarded that a look could be created by synthesizing those directing factors to complete fashion coordination.

As raw materials for this research, 'ELLE', being sold to all over the world and the first license magazine edited in Korea, was selected among many kinds of magazines, and then photographs in some volumes of ELLE which show various cases of fashion coordination well were selected to be analyzed. Those magazines, professionally treating fashions and having clear subjects to planning and directing clothes, are appropriate to the concept of coordination that directs images escaping from simply 'wearing' clothes. Furthermore, fashion products in those magazines are from various brands without focusing particular styles. Therefore, wide range of fashion styles could be analyzed.

The results of this research are as follow.

The themes of the photographs were eight kinds, look, item, color, accessory, pattern, model, and designer (brand). The coordination features as the followings were induced by analyzing those themes.

Firstly, fashion photographs were planned and directed based on trends. Through it, the trends and fashion coordination of each year in the later 1990s, the scope of this research, were grasped.

Secondly, the directions and processes of the photographs reflecting trends were tried from professional viewpoints, and new, fresh, and somewhat exceptional Mix and Match coordination was directed.

Thirdly, the theme of each photograph was planned and directed strictly based on T.P.O.

Fourthly, the relative importance of hair styles and make-up was significant in directing coordination though not visualized as the theme

of photographs.

Fifthly, models who transmit coordination in the photographs were selected based on their images rather than physical shapes.

Based on those research results, the total relationships of fashion coordination could be diagrammed.

This research is expected to be helpful for future various approaches about fashion coordination researches by giving an opportunity to recognize the total relationships of fashion coordination that has not been systematically arranged.